

# '뜨는' 제주와 제주를 '뜨는' 주민들. 뜨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한가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를 위한 기초조사

김주호 · 손주영 · 이은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발 간 사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 힐링의 공간이자 환상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 제주 인구 유입과 동시에 ‘뜨는’ 제주를 찾아온 주민이 제주를 ‘뜨는’ 현상인 이주민 정착 실패의 사회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주민이 제주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사회학적 갈등요소에 대해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연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 환경, 의료 및 복지시설, 쇼핑시설과 여가 문화, 지역민과의 정서 차이,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 창업을 위한 자금, 노동력, 판매, 유통 면에서 여러 요소들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착민과 이주민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그 만족도가 토착민이 이주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지역정서와 역사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관리 규정이 필요하고, 제주 토착민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상권 조성을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에 맞는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통한 독특한 생활양식들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해당 정보들을 제주안내 가이드북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애써준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연구를 통해 토착민과 이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6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 기 춘



## 연구요약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제주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여유로운 삶이 가능할 것 같은 힐링의 공간이자 환상의 섬으로 알려짐
- 정착한 주민의 이동과 관련하여,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이슈가 됨
  - 일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화에 의해 지역민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뜨는’ 제주를 찾아온 주민의 제주를 ‘뜨는’ 현상에 대한 이주민 정착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제주 인구의 유입율과 동시에 이탈율의 증가, 사회문제 본격화
  - 제주 정착에 실패해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는 제주를 ‘뜨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음
  - 제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탈 인구에 대한 조사 자료도 찾기 어려움
  - 제주 내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소외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는 ‘뜨는’ 제주에 찾아와 여유로운 삶을 꿈꿨던 이주민들이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제주를 ‘뜨는’ 원인과 이유를 개념화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제주의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토대(framework)를 마련할 문화적 융화의 기초조사임

## Ⅱ. 이론적 배경

### 1. 이주현상 및 도시 이주의 특성

#### 1) 제주 인구 변화 추이

- 제주 인구증감 및 유입에 대한 2000년 이후의 통계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제주로의 이주가 도태된 상황임이 파악가능
- 제주의 인구증감에 대한 통계에서 전입에 대한 수치는 확인 가능 하지만, 전출 인구에 대한 통계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2) 제주의 산업구조

- 제주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대부분인 산업구조 공간임
- 기존의 귀농·귀촌 연구는 제주의 인구유입과 이동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움
- 제주의 인구수를 비교하면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이지만, 인구 비율로 비교한다면 고른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제주 이주민이 은퇴형(50~60대 이상)이 아닌, 사업형(20~30대)의 형태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높음
- 이주의 형태가 타 지역과 차이가 나는 만큼, 제주지역 산업구조 이해를 통한 제주형 이주 문제 연구가 필요함

### 2.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전통적 자본으로 설명 불가능한 개인의 물적, 인적,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사회구조적 자원으로 이해됨
  -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는 친구, 동료,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망임(Burt, 1992)
  -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 가능한 관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개념이 됨

### Ⅲ.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 1. 연구대상의 선정

- 연구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속성으로 구분가능하며, 공통의 속성을 기준으로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으로 유형화시켜 결과 분석 진행하였음
- ① 토착민(native person)
- ② 이주민(immigrant person)
- ③ 귀환민(the person who return to his home town)
- ④ 이탈민(the person who leaves his home town)

#### 2. 연구문제 선정

- 첫째, 이주민이 제주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둘째,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사회학적 갈등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자료수집 방법

- 정성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
- 정량적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 : 사회과학 조사방법

### Ⅳ. ‘뜨는’ 제주에서 왜 ‘뜨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 델파이 조사 연구결과 : 제주정착에 실패하는 갈등 요소
  - ① 교육환경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 환경
  - ② 의료시설 : 의료 및 복지시설과 혜택
  - ③ 쇼핑·문화 : 쇼핑시설 및 여가문화 환경
  - ④ 지역정서 : 지역민과의 정서 및 관점
  - ⑤ 교통 :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
  - ⑥ 상권 : 창업을 위한 자금, 노동력, 판매, 유통 등의 환경
  - ⑦ 정책 : 이주정착, 생활, 적응 관련 정책

## V.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민개념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가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사회학적 갈등요소 결과비교
- ‘교육환경’, ‘쇼핑·문화’, ‘지역정서’, ‘상권’, ‘정책’의 요인에서 토착민과 이주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토착민의 만족도가 이주민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낯선 언어와 억양의 극복
  - 제주 사투리의 음성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일상에서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접할 음성지원 서비스 시도가 필요함
- 제주 토착민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상권 조성
  - 지역정서와 역사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관리 규정이 필요함
  -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에 맞는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 어촌계를 둘러싼 문제
  - 해외의 바다 낚시권한(License) 판매와 관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 어촌계 및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임
- 제주 가이드북의 사회·문화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안내 필요
  - 제주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통한 독특한 생활양식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해당 정보들을 제주안내 가이드북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제주 농가의 6차 산업 유통처 확보 필요
  - 6차 산업의 교육과 달리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기회는 어려운 실정임
- 이주민이 겪는 문제점 중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어려움
  -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학생 및 2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 주거지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민심과 함께하는 관공서
  - 주민 불편해소, 국민성 회복 및 지역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 연구 배경 .....                            | 1  |
| 2. 연구 목적 .....                            | 4  |
| II. 이론적 배경 .....                          | 6  |
| 1. 이주현상 및 도시 이주의 특성 .....                 | 6  |
| 2. 사회적 자본 .....                           | 11 |
| 3.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13 |
| III.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                    | 16 |
| 1. 연구대상의 선정 .....                         | 16 |
| 2. 연구문제 선정 .....                          | 20 |
| 3. 자료수집 방법 .....                          | 20 |
| IV. ‘뜨는’ 제주에서 왜 ‘뜨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     | 25 |
| 1. 정성적 연구 : 델파이 조사 .....                  | 25 |
| 2. 제주를 ‘뜨는’ 사회 · 심리학적 요소들 .....           | 26 |
| V.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민개념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가 ..... | 69 |
| 1. 정량적 연구 : 사회과학 조사 분석 .....              | 69 |
| 2. 관계형성과 사회적 자본 .....                     | 75 |
| 3. 토착민과 이주민의 비교분석 결과 .....                | 78 |
| VI. 결 론 .....                             | 81 |
| 1. 정성적 연구의 요약 .....                       | 81 |

|                     |     |
|---------------------|-----|
| 2. 정량적 연구의 요약 ..... | 91  |
| 3. 결론 및 정책 제언 ..... | 94  |
| 참고문헌 .....          | 105 |
| ABSTRACT .....      | 108 |
| 부 록 .....           | 109 |

## 〈표 차례〉

|  |    |
|--|----|
| 〈표 I-1〉 제주 이주민 유형 .....                    | 2  |
| 〈표 II-1〉 제주도 지역별, 시기별 인구변화 추이 .....        | 7  |
| 〈표 II-2〉 도시의 총 인구수와 연령대비 구성 .....          | 10 |
| 〈표 II-3〉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               | 11 |
| 〈표 III-1〉 델파이 조사 패널 특성 .....               | 19 |
| 〈표 V-1〉 설문 응답자 특성 .....                    | 70 |
| 〈표 V-2〉 델파이 분석의 주요 7가지 요인과 집단 간 응답결과 ..... | 71 |
| 〈표 V-3〉 주민간 거리의 집단 간 차이 .....              | 73 |
| 〈표 V-4〉 제주에서의 삶의 만족도 집단 간 차이 .....         | 74 |
| 〈표 V-5〉 제주 이주에 대한 추천도 집단 간 차이 .....        | 74 |
| 〈표 V-6〉 사회적 관계형성과 세계시민주의 요인분석 결과 .....     | 77 |
| 〈표 V-7〉 토착민과 이주민의 시민의식 비교 .....            | 78 |
| 〈표 V-8〉 세계시민주의 세부항목과 집단 간 차이 .....         | 80 |

## [그림 차례]

|   |     |
|---|-----|
| [그림 Ⅱ-1] 산업구조의 비교 .....                         | 8   |
| [그림 Ⅲ-1] 연구 프로세스 .....                          | 23  |
| [그림 Ⅳ-1] 제주의 고등학교 응원문화 ‘백호기’ .....              | 38  |
| [그림 Ⅳ-2] 평일에도 북새통인 제주공항 .....                   | 45  |
| [그림 Ⅳ-3] 불법주정차로 복잡한 도로 .....                    | 47  |
| [그림 Ⅳ-4] 제주환상 자전거길 .....                        | 48  |
| [그림 Ⅳ-5] 제주의 자연환경 경쟁력의 위기 .....                 | 53  |
| [그림 Ⅳ-6] 6차 산업의 유통처 모색의 필요 .....                | 55  |
| [그림 Ⅳ-7] 파리에서 한 달 살기 .....                      | 59  |
| [그림 Ⅳ-8] ‘제주도민 우대’ 자격요건 .....                   | 60  |
| [그림 Ⅳ-9] 만 19~64세 제주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          | 62  |
| [그림 Ⅳ-10] 바릇잡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주 현실과 다른 언론의 보도 ..... | 64  |
| [그림 Ⅳ-11] 바다 사용권 갈등 언론보도 .....                  | 65  |
| [그림 Ⅳ-12] 제주 곳곳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범죄없는 마을’ 돌비석 ..... | 66  |
| [그림 Ⅴ-1] 토착민의 만족도 .....                         | 72  |
| [그림 Ⅴ-2] 이주민의 만족도 .....                         | 72  |
| [그림 Ⅵ-1] 제주 생활문화의 이중적 가치관 .....                 | 89  |
| [그림 Ⅵ-2] 제주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형성된 다양한 인간관 .....        | 90  |
| [그림 Ⅵ-3] 제주 사투리 안내판의 음성화 .....                  | 96  |
| [그림 Ⅵ-4] 지역성을 살린 산토리니 이아마을 .....                | 98  |
| [그림 Ⅵ-5] 아름다운 간판이 문화상품이 되고 있는 잘츠부르크 .....       | 99  |
| [그림 Ⅵ-6] 전통과 현대의 조화: 스트라스부르 기차역 .....           | 100 |
| [그림 Ⅵ-7] 알래스카 낚시 허가증 구매 안내 .....                | 101 |
| [그림 Ⅵ-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지도 .....         | 102 |
| [그림 Ⅵ-9] 지역 문제점에 함께 고민하는 관공서 .....              | 104 |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 (1) ‘뜨는’ 제주

- 제주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여유로운 삶이 가능할 것 같은 힐링의 공간이자 환상의 섬으로 알려짐
  - 세계 7대 경관 선정, UNESCO 3관왕 달성, 1천만 관광객 방문 등 대내외적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점점 더 인식되어짐
- ‘뜨는’ 제주는 유입해오는 귀농귀촌 인구와 더불어 47만 명의 인구를 돌파(제주의 소리, 2016)함. 이주민의 증가는 저출산·노령화의 문제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 신생 산업의 발생 등을 불러일으켜 제주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활용될 것임
  -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산업 정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던 시기에 호남지역의 차별로 전라도 농촌의 불황에서 벗어나려 제주로의 이주가 많았음. 제주 관광 개발과 감귤 산업의 본격화로 ‘희망의 땅’으로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함(주희춘, 2008)
  - 2010년대 급격히 늘어난 제주 이주민 유형은 은퇴형, 거주형, 사업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I -1〉 제주 이주민 유형

| 제주 이주 형태 | 연령대          | 목적과 거주 형태        |
|----------|--------------|------------------|
| 은퇴형      | 50대~60대 이상   | 은퇴생활<br>전원 주택 건축 |
| 거주형      | 30대 후반 ~ 40대 | 자녀 교육<br>년세 및 전세 |
| 사업형      | 20대~30대      | 자영업<br>농가주택 리모델링 |

자료: 아이엠피터 2015년 5월 16일자 기사

## (2) 제주의 젠트리피케이션과 변화

- 정착한 주민의 이동과 관련하여,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도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발이 가속되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라 정의됨
  - 서울의 홍익대 부근, 삼청동, 가로수길, 서촌, 경리단 길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주지 값의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임
  - 구좌읍 월정리와 연동 바오젠 거리가 위기에 직면한 것들을 조망하며 제주 전체적인 문제로 불어져 지역민을 보호하자는 정책적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3) 제주 정착민과 이주민의 갈등

- ‘뜨는’ 제주와 제주를 ‘뜨는’ 주민들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이슈가 제주의 토착민과 이주민의 근본적인 사회·문화

현상이라 설명하기 어려움

- 일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화에 의해 지역민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뜨는’ 제주를 찾아온 주민의 제주를 ‘뜨는’ 현상에 대한 이주민 정착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자본의 문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독특한 문화 및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이주민들 스스로가 심리적 갈등을 느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임
- 지역 토착민과 주민 사이의 심리적 괴리감은 방황하는 이주민의 문제로 불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2) 연구의 필요성

○ 제주 인구의 유입율과 동시에 이탈율의 증가, 사회문제 본격화

- 제주 정착에 실패해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는 제주를 ‘뜨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음
- 제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탈 인구에 대한 조사 자료도 찾기 어려움
- 제주 내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소외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는 ‘뜨는’ 제주에 찾아와 여유로운 삶을 꿈꿨던 이주민들이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제주를 ‘뜨는’ 원인과 이유를 개념화하고자 함

○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내에서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심리, 사회, 문화 등의 통합된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함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적 오해를 해소하고,

- 간격을 좁혀 이주민들의 적응을 위한 문화적 융화의 요인들을 척도화
- 측정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주의 거주와 정착,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문화적 융화의 차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각 이해관계자의 상황별, 적응 수준별, 다양한 차원의 상황에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며, 이들의 개별적 변화를 넘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체계의 변화지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제주 내의 이주민과 유출되는 이주민과 관련된 후속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임

## 2. 연구 목적

### 1)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

- 본 연구는 제주의 토착민과 이주민의 상호간의 이해와 문화적 융화를 위하여 심리, 사회, 문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함
- ‘뜨는’ 제주에서 제주를 ‘뜨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전현장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문화융화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제주의 문화와 융화적 차원의 연구가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척도를 신뢰도나 타당도의 검증 없이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노력이 들더라도 제주 거주와 정착, 그리고 제주 토착민의 생활 및 문화적 성향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가치관의 이해가 필요함



## 2) 사회적 관계형성과 제주 문화

- 제주 정착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존 통념은 제주 토착민의 텃세와 권당<sup>1)</sup>문화가 이주민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짐
  - 제주의 지역주민 간에 또는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통합적 차원, 사회적 관계의 구조에 따른 관계망 차원, 사회적 관계의 기능적 측면인 사회적 지원의 제주를 둘러싼 생활양식과 사회문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제주의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토대(framework)를 마련할 문화적 융화의 기초 조사임
  - 토착민과 이주민의 업계 및 생활환경 전반의 심리사회적,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문화를 통합된 차원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에 대한 관점으로 제시하고자 함
  - 도시를 매력적이게 만들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임
- 향후 제주의 지역사회와 개발, 그리고 토착민과 이주민의 상호간의 이해와 제주 문화 융화적 차원과 활동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정립 가능함

---

1) 권당. 서로 사랑하는 관계 즉 혈족, 친족을 의미하는 단어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Ⅱ. 이론적 배경

### 1. 이주현상 및 도시 이주의 특성

#### 1) 제주 인구 변화 추이

- 제주 인구증감 및 유입에 대한 2000년 이후의 통계 결과를 확인해보면, 제주로의 이주가 도태된 상황임이 파악가능
  - 수명주기이론(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에 대입시켜 본다면, 제주는 성숙기에 자리하고 있음을 유추 가능함
  - 성숙기는 곧 쇠퇴기임을 암시함
  - 하지만 대부분의 뉴스와 언론에서는 제주로의 이주 권유와 ‘환상’, ‘로망’, ‘힐링’과 관련된 이미지를 주입시키며 제주 이상향에 대한 기대감만 언급하고 있음
- 제주도 지역별, 시기별 인구변화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유입과 유출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주의 인구증감에 대한 통계에서 전입에 대한 수치는 확인 가능하지만, 전출 인구에 대한 통계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제주의 경우 2010~2013년도에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으나, 2013~2016의 인구증감이 (-)성장세인 것을 확인 가능함
  - 제주 이주 후 정착에 실패한 사람들이 육지로 돌아가는 현상이 이탈률로 나타난 것임
  - 해당 내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고, 전출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찾아볼 수 없음

〈표 II-1〉 제주도 지역별, 시기별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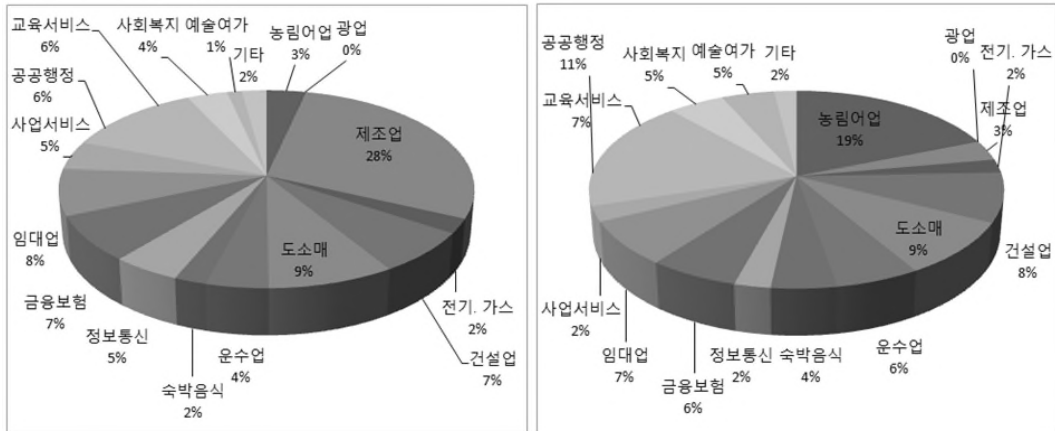
| 지역 구분            |     | 2000-2009<br>인구증감 | 2010-2013<br>인구증감 | 2000-2013<br>인구증감 | 2013-2016<br>인구증감 |
|------------------|-----|-------------------|-------------------|-------------------|-------------------|
| 제<br>주<br>시      | 한림읍 | -1,461            | 1,553             | 290               | -2,198            |
|                  | 애월읍 | 1,043             | 1,265             | 3,686             | -2,562            |
|                  | 구좌읍 | -2,518            | -502              | -2,948            | -858              |
|                  | 조천읍 | -18               | -637              | -123              | -1,426            |
|                  | 한경면 | -1,675            | 35                | -1,524            | -587              |
|                  | 추자면 | -453              | -242              | -689              | 249               |
|                  | 우도면 | -159              | 54                | -54               | -163              |
| 서<br>귀<br>포<br>시 | 대정읍 | -2355             | 456               | -1,765            | -2,753            |
|                  | 남원읍 | -2,437            | -30               | -2,259            | -1,219            |
|                  | 성산읍 | -1,773            | -1                | -1,694            | -1,658            |
|                  | 안덕면 | -980              | 307               | -711              | -582              |
|                  | 표선면 | -565              | 103               | -303              | -870              |

자료: 제주도, 서귀포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근거하여 필자가 재구성

## 2) 제주의 산업구조

○ 제주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대부분인 산업구조 공간임

- 2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제주는 타 지역 보다 3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2차 산업의 경우 20~30대의 젊은 노동인구가 필요함. 이는 인구 유입과 더불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
- 제주는 인구의 유입과 세대 간 쏠림 현상이 심한 곳인데, 산업분포 결과가 반영된 인구 분포로 해석 가능함



자료: 제주지역 경제성장 역량 강화방안(2011)/ 좌: 전국, 우: 제주

[그림 II-1] 산업구조의 비교

- 기존의 귀농·귀촌 연구는 제주의 인구유입과 이동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움
  - 귀농·귀촌 연구는 모두 농업을 위한 이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됨
  - 농업을 위한 이주가 타 지역보다 낮은 제주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갈등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무리임
  - 3차 서비스 산업 형태의 창업이나 자녀 교육시설의 목적으로 이주하는 목적이 큼
- 제주의 인구수를 비교하면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이지만, 인구 비율로 비교한다면 고른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절대적인 개념으로 인구수를 비교한다면 제주는 노동인구가 현격히 낮은 편임
  - 하지만 제주의 인구를 기준으로 연령대비 비율의 고른 인구분포를 확인할 수 있음. 제주가 섬이라는 점, 그리고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해서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위면적당 노동계층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임
- 제주 이주민이 은퇴형(50~60대 이상)이 아닌, 사업형(20~30대)의 형태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높음

- 젊은 노동인구의 확보와 함께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어 계속 성장의 가능성이 높음
- 이주의 형태가 타 지역과 차이가 나는 만큼, 제주지역 산업구조 이해를 통한 제주형 이주 문제 연구가 필요함
- 기존 1차 산업 이주자 관점의 귀농·귀촌 연구는 적용하기 어려움
- 3차 산업 종사를 위한 제주 이주 행태와 섬 문화의 생활양식을 적용한 문화사회학적 관점의 갈등 양상 연구가 필요함

〈표 II-2〉 도시의 총 인구수와 연령대비 구성

| 행정<br>구역 | 구분 | 총<br>인구수   | 연령대       |           |           |           |           |           |           |           |         |         |        |
|----------|----|------------|-----------|-----------|-----------|-----------|-----------|-----------|-----------|-----------|---------|---------|--------|
|          |    |            | 0-9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 70-79     | 80-89   | 90-99   | 100이상  |
| 전<br>국   | 남  | 25,769,138 | 2,362,072 | 2,952,859 | 3,520,815 | 3,908,327 | 4,509,348 | 4,207,258 | 2,498,861 | 1,366,702 | 400,081 | 38,948  | 3,867  |
|          | 여  | 25,786,271 | 2,232,458 | 2,713,052 | 3,165,995 | 3,737,185 | 4,361,670 | 4,135,808 | 2,646,281 | 1,804,848 | 846,965 | 129,351 | 12,658 |
| 서<br>울   | 남  | 4,924,977  | 399,595   | 504,322   | 721,100   | 834,736   | 849,295   | 772,968   | 498,673   | 267,404   | 67,754  | 7,800   | 1,330  |
|          | 여  | 5,089,284  | 379,538   | 471,200   | 723,622   | 827,654   | 853,097   | 812,302   | 551,088   | 316,424   | 128,267 | 22,282  | 3,810  |
| 인<br>천   | 남  | 1,471,306  | 139,289   | 166,405   | 209,240   | 233,684   | 261,224   | 251,725   | 128,720   | 61,550    | 17,288  | 1,988   | 193    |
|          | 여  | 1,457,290  | 131,975   | 155,284   | 192,448   | 220,947   | 255,543   | 243,885   | 131,498   | 80,762    | 38,328  | 6,089   | 531    |
| 경<br>기   | 남  | 6,313,836  | 641,875   | 761,132   | 858,501   | 997,344   | 1,171,493 | 1,013,082 | 513,098   | 269,430   | 78,708  | 8,363   | 810    |
|          | 여  | 6,237,562  | 608,952   | 708,822   | 787,824   | 967,056   | 1,138,677 | 959,625   | 532,853   | 347,957   | 158,496 | 25,041  | 2,259  |
| 제<br>주   | 남  | 315,006    | 32,734    | 40,503    | 38,889    | 43,754    | 58,169    | 49,953    | 28,588    | 17,001    | 4,993   | 398     | 24     |
|          | 여  | 312,436    | 30,788    | 36,478    | 34,964    | 42,182    | 53,119    | 47,025    | 29,950    | 22,440    | 12,590  | 2,709   | 191    |
|          |    | 100%       | 9.85%     | 11.68%    | 11.19%    | 13.50%    | 17.00%    | 15.05%    | 9.59%     | 7.18%     | 4.03%   | 0.87%   | 0.06%  |

자료: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근거하여 필자가 재구성

## 2. 사회적 자본

- 전통적으로 자본은 생산에 절대적인 요소인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을 가리킴. 인적 자본 개념이 도입되면서 금융 자본(financial capital)과 물리적 자본 외에 환경자본(environment capital) 등 개념의 분리가 됨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전통적 자본으로 설명 불가능한 개인의 물적, 인적,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사회구조적 자원으로 이해됨(Coleman, 1990)
- Bourdieu(1986)은 ‘자본의 형태(The Form of Capital)’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mutual acquaintance)이나 인식(recognition)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 정의함
  -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는 친구, 동료,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망임(Burt, 1992)
  -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 가능한 관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개념이 됨

<표 II-3>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 연구자                 | 사회적 자본의 개념  |
|---------------------|---|
| Grootaert<br>(1998) |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관계, 태도 및 가치                          |
| Narayan<br>(1999)   |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협동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범이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
| Loury<br>(1992)     |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시장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기술과 특성의 획득을 촉진하거나 지원하게 되는 사람들 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

-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출됨
  - 개인이나 사회구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space)안에 있는 것(Bullen & Onyx, 1998)
  - 개인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과 행동을 쉽게 해주는 네트워크(network), 규범 및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 있음(소진광, 1999)
  - 경영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정서적 존중감, 관계망 지원(Cobb, 1976), 도구적 표현적 지원(Dean & Lin, 1977), 물질적 행동적 도움과 친밀한 상호작용, 정보제공 및 안내, 반응표출, 긍정적 상호작용(Barerra & Ainlay, 1983)으로 정의됨
- 제주 정착에 실패한 이유에 대부분 이주민 차별과 텃세문화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함
  - 자연 환경의 경쟁력을 통한 관광업의 활성화는 많은 인구유입의 형태로 진행됨. 제주는 국내 이주민 뿐 아니라 해외 이주민의 수용으로 세계 시민화가 진행되고 있음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사람 간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제주의 경쟁력으로 발전하도록 진행되어야 함



### 3.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 기존 선행연구 현황

##### (1) 주요 선행연구 1

- 과 제 명 :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연구
- 연구목적 : 이주한 정착이주민의 이주 적응도와 만족도 비교
- 연구방법 :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제주 정착기간, 이주유형 및 특성과 삶의 질 확인
  - 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변수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의 내용들은 모두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주거유형, 이주준비기간, 이주유형, 사업수혜여부)와 같은 표면적 것들로 적응을 어려워하는 문화적 괴리감과 심리학적 요인들의 개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 주요 선행연구 2

- 과 제 명 : 강남의 역류성 젠트리피케이션: 신사동 가로수길과 방배동 사이길의 사례연구
- 연구목적 : 강남의 도시개발역사와 공간해석
- 연구방법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제시 및 사례 비교

- 주요 연구내용 :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양식의 변화의 긍/부정견해
  - 기존의 센트리피케이션 연구는 모두 임차상인 보호방안의 정책 및 부동산개발 구획의 연구가 주를 이룸
  - 임차상인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 및 자본가를 향한 박탈감 등의 내부적 변수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3) 주요 선행연구 3

- 과 제 명 :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적응 척도 개발
- 연구목적 : 다문화상황에서 지역사회적응을 개념화
- 연구방법 : 전문가 중심의 내용확인 및 우울/만족감 여부로 군집비교
- 주요 연구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소통장벽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적응 고찰
  -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적응화 방안은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범주와는 거리감 있음
  - 제주지역만의 이주자 특색으로 생계형 귀농인구보다 제주라는 지역적 매력을 바탕으로 한 의도적 귀촌 이주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됨
  - 특히 타 지역과 구별되는 이주 유형으로 1차 산업 종사자들 보다는 3차 서비스 산업 위주로 창업의 형태의 제주로의 이주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기존의 농촌/지역 적응화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2) 본 연구의 차별성

- 연구목적 : 제주의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를 위한 기초 조사
- 연구방법 : 델파이조사(Delphi Method)를 활용하여 토착민과 이주민의 내적 심리 및 문화적 요인 도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의미파악
- 주요 연구내용: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융화의 방법
  - 농업을 배경으로 한 이주민의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에서 벗어나 사업 및 취업 등의 다양한 이주배경으로 정착하는 제주의 실정에 맞게 진행
  - 제주 정착 이유와 갈등의 원인과 문제에 대한 델파이분석의 심층면담 응답 자료의 분석으로 진행함
  - 제주 내 이해관계에 따른 토착민과 이주민 차이와 문화적 융화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규명함
  - 정성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으로 델파이 분석, 그리고 응답 결과의 척도화 활용측면을 구조화된 설문지로 작성하여 정량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를 추가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으로 탐색적 연구 결과를 검증함
  - 정성적,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여 응답 내용의 개념화 및 과학적 통계결과를 제시함

### Ⅲ.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 1. 연구대상의 선정

##### 1) 연구대상의 선정 및 조사범위

###### (1) 연구대상자 특성

- 연구대상자는 제주 출신 7명과 타지 출신 8명. 남성(8명), 여성(7명)의 비율로 성별 비율 및 다양한 연령대별 응답자를 설정함
- 연구진은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삶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출신배경, 연령, 직업적 환경,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면담 대상자를 선정 시 이러한 변수를 반영하여 다양한 면담 대상자를 확보하고자 함
- 면담에 참여한 응답자 선정은 연구자들의 지인 및 주변인의 추천에 의해 모집되었음
- 2016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평균 2회의 면담을 진행함. 응답와의 원활한 면담 진행을 고려하여 전화, 이메일, 일대일 직접 면담의 형태로 진행함. 각 면담 시간은 2시간 이상을 소요함

###### (2) 조사 결과의 신뢰성

- 텔파이 조사의 대상 선별과 참여의 내용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Gordon(1992)는 특정분야의 전문가 15인 이상의 참여는 정규분포적인 구성을 이루게 되어 조사결과의 중위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제주 지역민들의 문화적 융화와 관련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경우,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 그리고 귀환민과 이탈민과 같은 제주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현실 응답들은 제주사회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영향력 있는 근거가 됨

### (3) 연구대상자 유형화 및 개념적 정의

- 개인이 처한 출신 배경과 현재 거주 위치에 따른 제주 지역민 유형을 분류함

- 연구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속성으로 구분가능함

- ① 토착민(native person) : 제주 태생, 타 지역 거주 경험 없는 자
- ② 이주민(immigrant person) : 타 지역 태생, 제주로 이주 후 거주 중인 자
- ③ 귀환민(the person who return to his home town) : 제주 태생, 제주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후 타 지역으로 이주, 다시 제주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
- ④ 이탈민(the person who leaves his home town) : 타 지역 태생, 타 지역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후 제주로 이주, 제주 적응에 실패하고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

- 공통의 속성을 가진 연구대상자를 집단화시키면

- 토착민, 귀환민 : 제주 태생, 유·소년기를 제주에서 보낸 공통점 있음
- 이주민, 이탈민 : 타지역 태생, 유·소년기를 타지에서 보낸 공통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출생지와 거주시기를 기준으로 4가지(①~④) 속성으로 분류하되,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공통의 속성을 가진 연구대상자를 기준으로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으로 유형화시켜 결과 분석하였음

## 2) 연구조사자 특성

- 개인과 문화,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제주와 토착민, 그리고 이주민의 입장과 관점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됨
- 인터뷰를 통해 각 집단의 행동방식과 가치관의 편견에서 벗어나 맥락 속에 이해 가능한 것을 분석해내는 연구자가 필요함
- 일본 문화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준거(reference)가 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sup>2)</sup>은 미국 학자가 포로로 잡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기초하여 일본에 대해 연구함. 이는 관찰자적 시각에서 일본문화를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로 분석한 것임
- 연구조사자로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들은 제주의 토착민, 이주민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위치에 있음
  - 관찰자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응답자의 내적 심리 및 문화적 요인을 도출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의미를 파악하여 진행함

---

2) Benedict, Ruth.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Houghton and Mifflin.

<표 Ⅲ-1> 델파이 조사 패널 특성

| ID    | 조사자<br>특성 |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
|-------|-----------|----|-----|------|-----|
| 응답자 ① | 이주민       | 남  | 50대 | 대졸   | 자영업 |
| 응답자 ② | 이주민       | 여  | 30대 | 전문대졸 | 회사원 |
| 응답자 ③ | 이주민       | 남  | 30대 | 대졸   | 자영업 |
| 응답자 ④ | 이주민       | 남  | 20대 | 대졸   | 회사원 |
| 응답자 ⑤ | 귀환민       | 남  | 20대 | 대졸   | 회사원 |
| 응답자 ⑥ | 토착민       | 남  | 60대 | 대학원졸 | 교사  |
| 응답자 ⑦ | 토착민       | 남  | 50대 | 대학원졸 | 교사  |
| 응답자 ⑧ | 토착민       | 여  | 20대 | 대졸   | 주부  |
| 응답자 ⑨ | 토착민       | 여  | 50대 | 고졸   | 주부  |
| 응답자 ⑩ | 귀환민       | 여  | 20대 | 대졸   | 회사원 |
| 응답자 ⑪ | 이탈민       | 여  | 10대 | 초졸   | 학생  |
| 응답자 ⑫ | 이탈민       | 여  | 50대 | 대졸   | 주부  |
| 응답자 ⑬ | 이주민       | 여  | 40대 | 고졸   | 주부  |
| 응답자 ⑭ | 귀환민       | 남  | 50대 | 대졸   | 자영업 |
| 응답자 ⑮ | 이주민       | 남  | 40대 | 고졸   | 자영업 |

## 2. 연구문제 선정

- 첫째, 이주민이 제주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둘째,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사회학적 갈등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자료수집 방법

### 1) 정성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 (1) 델파이 조사

- 델파이 조사방법(Delphi Method)
  - 1950년대 랜드 연구소(Land corporation)의 Dalkey and Helmer(1963)에 의해 개발된 연구 방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식을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채택되는 방법임(Hsu & Sandford, 2007)
- ‘두 사람의 의견이 한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음(Woudenberg 1991; 이종성, 2001)
- 델파이 기법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이고 자유롭게 유도하여 합리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임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의 각 이해관계자의 상황별, 적응 수준별, 다양한 차원의 상황과 연관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고, 일치를 통해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를 위한 문화융합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므로, 델파이 기법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기존의 이주민 문제 관련 연구들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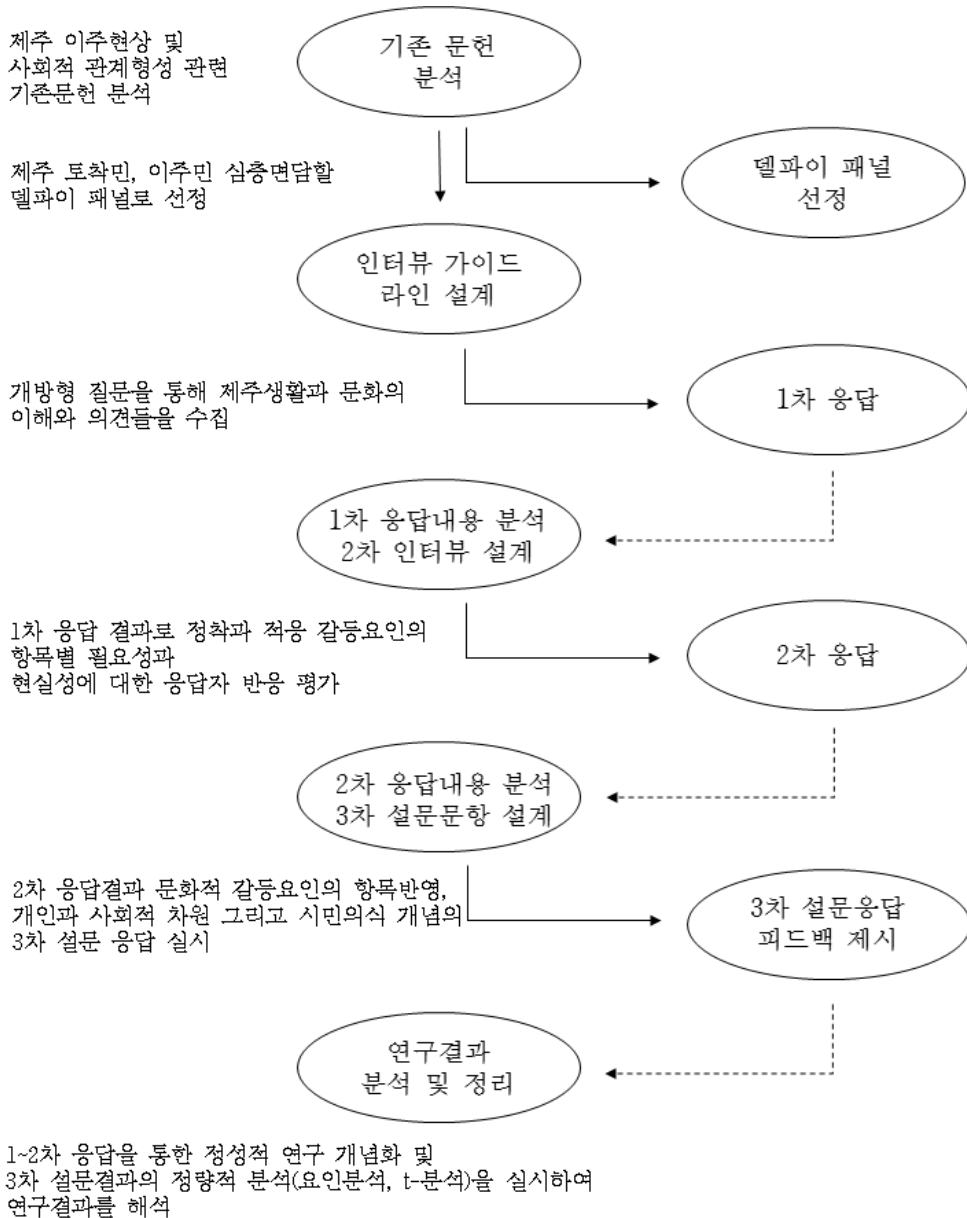
- 이주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과 인구통계학적 속성의 단순 비교에 그침
- 인구통계학적 속성으로는 토착민과 이주민간의 문화·심리화적인 갈등이나 오해의 내적인 요인은 확인이 불가능함
- 대부분 이주민 만족과 관련하여 이주의 목적이나 삶의 행동적인 특성으로 파악하여 접근함. 해당 개념으로 포괄하려면 이주 만족과 실패에 대한 개념의 설명력이 한계를 갖는 딜레마가 존재함
- 제주의 문화적 현상을 규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즉 제주지역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각 입장에 따른 연구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2) 델파이 분석 절차

- 첫째, 국내외 발간된 선행연구 논문, 각종 정부간행물, 국회간행물, 관광 및 관련기업 연구보고서, 서적 및 논문 등의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문헌적 연구방법을 실시
  - 제주의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 검토
  - 면담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구성개념의 정립 및 구조화된 체계 형성
- 둘째, 실제 제주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실무와의 연계성 조사
  - 개방형 질문단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1차 응답을 거쳐, 구조화된 내용으로 2차 응답을 취합함
  - 응답 조사 개념을 반영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 3차 응답이 진행되도록 함. 각 조사 개념의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제안과 쟁점을 충분히 수용
  - 개방형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학적 환경에 따

른 계층적 차이를 이해하여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를 위한 연구의 구조화된 델파이 문항 도출

- 셋째, 구조화된 응답을 설문 문항으로 활용하도록 문항 개발
- 넷째, 초기에 도출된 문항들의 현상에 대한 정의(구성개념), 명료성, 간결성, 그 밖의 간과된 현상이나 누락된 구성개념의 보충
- 다섯째, 개방형 형태의 1차와 2차 심층 면담 조사로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이질감과 융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받고, 문제를 진단. 이후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식의 기반으로 진행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융화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
  - 델파이 조사를 통한 1차, 2차에 참석한 15명의 응답자 중 12명은 구조화된 설문 형태의 3차 조사에 참여하였음. 델파이 조사 이후 정량화된 결과자료는 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임
  -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 완성 후, 3차 조사 진행하게 됨



[그림 III-1] 연구 프로세스

## 2) 정량적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

### (1) 사회과학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와 면접자들의 응답의 통계처리
  - 3차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응답을 객관적 수치 자료로 분석함
  -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집단 간 비교 값의 대조를 위한 t-test 활용함

### (2) 측정방법 및 분석

- 델파이 분석을 거쳐 체계화된 제주 정착 및 적응의 갈등요소
  - 교육환경, 의료시설, 쇼핑·문화, 지역정서, 교통, 상권, 정책 요인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 개인적 삶의 만족도와 이주와 정착, 사회적 거리감
  - 각 개념들을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 한 사람의 세계관에 대한 가치의 표출 개념인 세계시민 성향
  - 적극적 지구촌 주의, 정보의 다양화, 소극적 안일주의, 개인 행동주의
  - Hofstede(1980), Segal et al.(1993), Vinson et al.(1977)의 가치관 개념을 문항으로 배치함.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 IV. ‘뜨는’ 제주에서 왜 ‘뜨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 1. 정성적 연구 : 델파이 조사

#### 1) 델파이 조사 연구결과

- 기 제기된 연구문제
  - 이주민이 제주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사회학적 갈등요소
- 제주 정착의 어려움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집단의 공통적 응답을 분석과정을 통해 확인함
- 본 연구는 단순히 출생이나 주거 형태만으로 분류하여 생활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이주와 정착의 어려움, 실패요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의식조사와 정착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선정과정에서 연령, 성별, 직업에 따른 편향성 문제는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함
- 델파이 조사는 단계별 조사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전문가들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특징을 보임
  - 특정 주제에 대해 평균 2회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 유형 모두의 의견으로 도출함
  - 주요 조사 내용은 제주 사회의 적응과 관련한 밀접한 개념임
- 조사결과는 경제적 적응 문제, 심리적응 문제, 정착 지원 관련 정책적 문제 등 개인과 사회 단위 개념 모두를 포괄하도록 구성됨

## 2. 제주를 ‘뜨는’ 사회 · 심리학적 요소들

○ ‘뜨는’ 제주로 이주와 정착 후 제주의 지리적 환경과 주민간 관계형성의 갈등과 실패의 내용을 1~2차 델파이 응답을 통해 확인

○ ‘뜨는’ 제주를 ‘뜨는’ 사람들의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7가지 요인을 규명함

- 각 개념들은 MECE 원칙<sup>3)</sup>으로 구성됨

- 해당 요인들의 세부적인 유형들 간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함

① 교육환경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 환경

② 의료시설 : 의료 및 복지시설과 혜택

③ 쇼핑 · 문화 : 쇼핑시설 및 여가문화 환경

④ 지역정서 : 지역민과의 정서 및 관점

⑤ 교통 :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

⑥ 상권 : 창업을 위한 자금, 노동력, 판매, 유통 등의 환경

⑦ 정책 : 이주정착, 생활, 적응 관련 정책

---

3)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 어떤 사항을 중복 없이, 그럼에도 누락없는 부분의 집합체로서 파악하는 것

## 1) 교육환경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 환경

- 자녀의 교육환경 및 제주 거주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음

### (1) 교육열

“학생들 삶은 어디든 비슷하다 생각해요. 제주는 경쟁이 심하고, 교육열도 높은 곳이에요. 연합고사 성적으로 적정수준 이상의 학생만 인문계에 갈 수 있고, 희망하는 학교를 5지망까지 제출해서 가게 되거든요. 고교 비평준화이다 보니 일찍 입시경쟁에 뛰어드는 거죠.” (응답자 ⑩)

“작년에 우리학교에서만 서울대를 5명이 갔습니다. 서울의 학교들과 비교해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일반 고등학교이지만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의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시행하고 있어서 과학특성화 교육으로 학생들이 졸업할 때 1인 1 논문을 갖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⑥)

“방학에도 매일 학교에 나와 학생들 특별활동이나 논문 지도를 봐주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해 실험(과학특성화 교육 관련), 토론,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학생의 열의가 대단해요. 선생님 수는 정해져 있고 전교생을 상대로 팀 지도를 하다 보니 방학이고 뭐고 없어요.” (응답자 ⑦)

“학원 이민의 형태로 제주를 떠나기도 하고, 방학 때만 잠깐 서울로 학원 다니러 고시원생활 하는 경우도 있어요.”(응답자 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제주 젊은이 10명 중 7명은 육지로 나가는 것 같고요.” (응답자 ⑩)

“육지로 전학 가는 학생들은 있지만, 육지에서 전학 오는 학생

들은 없어요.” (응답자 ⑥)

“시골에서 시내로 전학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고등학교에는 이주민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응답자 ⑦)

“교육열의는 서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열도 높은 편이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극명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에 사는 아이가 제주시 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똑똑한 아이들은 ‘육지’로 나가요. 거의 대부분이 학원을 다녔는데, 서울의 높은 예체능 교육 형태에 비해 예체능 계열의 학원 등록은 비율을 낮았습니다.” (응답자 ⑫)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환경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서귀포에서는 학원 다니는 애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응답자 ⑪)

“초등학생 자녀가 처음에는 제주에 온다고 좋아하다가 지금은 싫어하고 있어요.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것도 그렇고, 제주라고 해서 사교육이 없는 게 아니더라구요. ‘이럴 거면 왜 왔냐’는 얘기를 하곤 해요. 시외의 중학생들이 시내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비평준화 지역이라 일반 고등학교 보내기가 어렵다 그러던데요.” (응답자 ⑬)

- 제주의 교육열에 대한 토착민과 이주민의 응답 결과가 일치함
  - 자녀의 학교 및 사교육 환경에 대하여 높은 열의를 보임
  - 제주의 고교 비평준화 정책이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보임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특성화 교육이나 특별활동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은 편이나, 고등학교에는 이주민 학생이 적고, 제주 토착민 자녀들도 육지로 전학 가는 양상을 보임. 제주도의 고등학교 진학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임
  - 학원 유학을 위해 제주 토착민 자녀가 육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음



-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와 시외의 지역격차가 나타남
-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은 토착민 및 이주민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2) 학교 내 환경

“선생님들 대부분은 제주 출신인 편이죠. 제주 토박이들이거나 육지에서 공부하고 내려와 교편을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아닌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응답자 ⑥)

“거의 제주출신 선생님이죠. 외지 선생님은 1~2명 있으려나.” (응답자 ⑦)

“(육지 사람들이) 제주의 교육을 무시하는 건 심각해요. 건강하게 키우고 자연적으로 키우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경쟁사회에서 탈피하려고 내려온 걸 텐데 여건 타령만 하고 있어요. 특히 시골학교의 경우는 특성화 사업들이 워낙 잘돼 있는데 말예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시설도 엄청 좋고, 오케스트라 교육도 잘 시켜서 학생들이 악기 하나씩 다룰 수 있게 해요.” (응답자 ⑭)

“제주의 학교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특별활동은 많은데 시설은 보잘 것 없어요. 활동 자체도 엉터리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요.” (응답자 ⑫)

“학교 공부 말고 다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던 점은 좋았어요. 소풍 장소, 승마 같은 거요. 그럼 제주에서 만족도는 3점을 줄 거고, 서울 학교를 다니면서 만족도는 5점을 줄 거예요.” (응답자 ⑪)

“선생님들은 거의 제주도 분이시고, 가끔 전라도 분 1~2명 정도 있었어요. (응답자 ⑪)

“제주의 귀족학교(국제학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입니다. 너무 홍보만 되어 실속이 없다고 봐요. 뽕튀기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응답자 ⑫)

“제주 학교는 아직도 교권이 셌요. 선생님의 체벌도 인정하는 분위기이고요. 어릴 때 어머니께 가장 많이 말씀 들었던 건 ‘친구들과 사이좋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였거든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제주가 아직 선생님에 대한 교권의 기강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응답자 ⑤)

○ 학교 내 환경에 대한 토착민과 이주민의 응답차이가 발생

- 교내 대부분의 교사는 제주 태생의 토착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주민은 닫힌 사회라는 인식과 함께 차별하고 있다 생각함. 아직까지 제주는 교권이 강하며, 교사와 이주민 학부모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제주의 교육 시설 및 특별활동에는 만족하는 편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고, 서울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보임

(3)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 환경

“백화점이 쇼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응답자 ⑬)

“도서관이 있긴 했지만, 책은 사서보는 편이어서. 대형 서점이 하나도 없는 게 답답했죠.” (응답자 ⑫)

○ 고등 학력의 이주민 여성들은 평생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을 보임

- 응답자 본인의 평생 교육환경에 대한 욕구가 드러남

- 성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백화점 문화센터 등)나 대형서점 부재에서 지식의 충전의 욕구를 보임

## 2) 의료시설 : 의료 및 복지시설과 혜택

- 의료 환경이나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혜택에 대한 의견

### (1) 의료시설 만족도

“큰 병원들 많이 생기고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응답자 ⑨)

“시골의 경우는 의료시설이 불편하긴 하죠. 그렇지만 대놓고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응답자 ⑭)

“병원이에요?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시내 나가면 있지 않나요? 시설환경을 따졌다면 제주에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응답자 ②)

“병원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불만입니다. 10분 거리에 있지만 서귀포에 있는 병원은 수준이 너무 낮고, 제주대 병원까지 가려면 50분정도 소요되는데 어르신이나 어린 아기들이 있는 경우엔 살기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응답자 ①)

“병원 근무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시설은 낙후되어있다 생각합니다. 요양을 위해서라면 제주에 내려 오는 게 좋지만, 치료 중인 환자라면 서울이나 분당의 큰 종합병원 근처에 사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일 겁니다. 지인 중에 병원은 무조건 서울로 다녀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응답자 ③)

“의료시설에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병원의 좋은 의사는 잠깐 있다가 서울로 가시더군요.” (응답자 ⑫)

- 의료시설과 만족도는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의견이 극명히 갈림
  - 토착민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좋아지는 의료 환경에 만족함
  - 이주민의 경우, 대도시의 의료 질과 서비스를 비교하며 불만족함
  - 의료의 시설에 대한 불만보다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한 서비스 요인에 매우 불만족하게 응답함
  - 병원과 같은 비영리 기관 역시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개선해야할 필요를 응답을 통해 발견함
  -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주 의료기관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3) 쇼핑 · 문화 : 쇼핑시설 및 여가문화 환경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이 생각하는 ‘여가’라는 개념의 인지적 차이가 있음을 상기하며 해당 쇼핑 · 문화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들의 느끼는 여가 공간의 부족
  - 쇼핑의 불편함에 대한 상당한 고충

#### (1) 여가 공간 부족

“서귀포에 극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 리모델링한다고 쉬고 있어요. 문화시설이라 할 만한 게 없죠. 멀티플렉스 공간 같은 건축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응답자 ①)

“문화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죠. 문화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제주의 젊은이

들이 육지로 많이 나가려 하는 게 아닐까 해요. 놀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니까요.” (응답자 ③)

“제주에 놀러왔다가 정착하게 됐어요. 제주의 자연환경이 좋아서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마을이라 좋아요.” (응답자 ②)

“놀 거릴 찾으려면 제주에 못 있죠. 여긴 그런 게 원래 없었어요.” (응답자 ⑤)

“제주는 일을 계속해야 했어서요. 여가랄 게 뭐 있나. 일 마치면 밤이고, 밤이 되면 자야했어요. 어르신들은 쉼 없이 일하셨어. 80살 넘는 할머니들도 몸에 문제가 없는 한 일하시는걸.” (응답자 ⑨)

“바다나 주변 자연환경에는 만족해요. 강원도 같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는 지역이 좁아서 어디든 쉽게 금방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어두워지면 무서워요. 시내도 마찬가지로요. 해가 지면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응답자⑬)

“서울에서 빠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제주에 내려오면 여유롭긴 하지만, 금방 질려요. 바다나 자연을 보고 있는 것 도 하루 이틀 즐겁죠.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아마 이주민들은 더 비교가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영화관 자체의 개체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공연이나 전시는 너무 없어요. 제주도내 박물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다 관광지느낌의 초콜릿, 자동차 박물관 같은 것들 뿐 이잖아요.”(응답자 ⑩)

#### ○ 여가 공간 부족의 강조

- 여가 및 문화를 즐길 공간의 개체 수 자체가 부족하고, 전시나 공연의 경우 제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움

○ 여가 개념에 대한 토착민과 이주민의 인식 차이

- 일이 많아 쉴 수 없던 제주 환경에서 여가와 문화생활은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임
- 제주의 젊은이들의 육지이탈 현상에도 문화적 욕구의 충족이 큰 부분은 차지할 것임
- 제주의 자연 환경에 거주를 결심한 이주자들 역시 대도시에서의 문화생활을 그리워하고, 반복되는 일상과 주변 경관에 권태를 느끼고 있음

(2) 쇼핑의 불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려면 배송료가 더블로 붙어서..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주문을 하는데, 혼자 인터넷주문은 못하겠어요. 저렴한 가구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구의 경우 배송료 자체가 비싸고 게다가 제주산간요금이 적용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응답자 ④)

“쇼핑시설,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대형 서점, 영화관, 대형 마트, 백화점, 전시회 장소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쇼핑은 아예 서울에서 하고 오기도 했어요.” (응답자 ⑫)

- 제주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타 지역과의 격차를 많이 느끼는 부분은 문화시설과 쇼핑 공간이었음
- 인터넷 배송요금의 민감도가 토착민보다 이주민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주민의 경우 쇼핑을 위해 타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음

#### 4) 지역정서 : 지역민과의 정서 및 관점

- 제주의 자연에 대한 동경과 낭만에 사로잡혔던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갈등과 어려움의 요인은 지역민과의 관계였음

##### (1) 낯선 언어와 억양

“제주 사투리가 발음이 좀 무섭고 썬 편이에요. 시골 어른들은 더 그렇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환경에서 일하며 대화하는데 최적화된 억양이 고착화된 것 아닐까요.” (응답자 ①)

“제주 사투리는 언어 자체가 다르고 억양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래아(·) 글자를 아직도 사용하는 것도 신기하고요. 특히 이 아래아 발음을 듣고 이주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고 들었어요.” (응답자 ③)

“지금이야 적응이 됐지만, 처음 왔을 땐 제주 말은 너무 괴팍하게 느껴져서 고생했죠. 언어가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할까. 사투리가 썬 사람들에게는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응답자 ⑮)

“아래아 발음은 따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른들은 제대로 못해서 티가 나는데 아이들은 금방 배우고 잘하더라구요. 제주도 사투리 대회에 육지 애들이 상을 휩쓰는 걸 보면요.” (응답자 ⑨)

“상점이나 식당들이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요. 말씨에서 느껴지는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응답자 ⑬)

“유교문화라면서 제사도 깎듯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반말(사투리)로 대화하는 걸 보고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응답자 ⑬)

- 제주 사투리의 이질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왜곡 현상이 발생함
  - 제주도 사투리의 문자적 언어 측면에서는 독창적이고 재밌게 생각하지만, 음성적 언어 측면에서는 실제 토착민의 억양을 이질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음
  - 독특하고 이질적인 발음과 억양으로 대화 중 감정 왜곡이 작용함
- 제주 사투리의 반말 형태의 짧은 문장을 어른도 높임말 없이 사용하는 것에 이주민들은 유교문화권과 상충된다고 여김

## (2) 제주 토착민의 강한 연대

“제주민들 끼리는 지금도 굉장히 끈끈해요. 한 다리 건너면 제주사람 모두를 거의 다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좁은 곳이니깐요. 가까운 사람끼리, 제주민 끼리 동향에 강하지만 외지인에게는 거리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범위가 좁고 가까운 만큼, 관계에 있어서는 한정적이고 활동범위가 좁아서이겠죠.” (응답자 ⑩)

“제주에서는 여자분에게도 삼촌이라 부르는데, 음식점에서 보면 서로 삼촌이라 부르며 제주 말씨를 쓰는 사람에겐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의 양도 다르게 나오는걸 보게 돼요.” (응답자 ①)

“학생들끼리 타지인을 차별하는 교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은 표준어를 사용하시지만, 애들은 사투리를 많이 써서 처음엔 말도 잘 안통하고 배척감이 들었어요.” (응답자 ⑪)

“제주의 남자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민의 축제 같기도 하고, 소속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대화할 때도 ‘어느 대학 나왔냐’는 질문보다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는 질문으로 친분을 확인하는 것 같거든요. 백호기(응원문화, 전교생 카드섹션)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난 것 같고요. 고



교를 중심으로 한 동창문화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응답자 ④)

“공부 잘하는 제주의 6개 학교의 응원전이 백호기이고, 고3까지 응원연습으로 학년 초반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 말이 많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활동에는 찬성하는 게,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회성도 기르고, 공부 이외의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체험학습이라 생각해요. 그 외에도 한라산 걷기, 남해 2일간 걷기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행사에 엄마들은 간식 준비로 따라가 격려하고 응원해줘요.” (응답자 ⑨)

“제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에, 육지에서 대학 다니고 사회생활을 마치고 노년에 제주에 내려온 사람들이 그리운 고등학교 친구들을 찾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들은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더라구요.” (응답자 ③)

“제주 사람들은 공동체와 집단에 대해 강한 소속 본능이 있다 생각해요. 60~70년 넘게 살아가는 동안 제주생활의 룰 만들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니, 자기 보호본능이라 할 수 있겠죠. 저 역시 제주 귀환민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주를 비워두었던 공백기는 그만큼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은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고 가꾼 땅인데 년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돌아온 거냐’ 이렇게요. 현실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요. 육지 사람이 느끼는 이질감은 그들이 싫어서 라기 보다는 그만큼 공동체 문화권에 들어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정착을 위해선 3년은 공을 들여야 한다 생각해요. 제주 토박이들이 지역을 지켜온 시간과 정성에 대한 보호본능이라 이해하며 노력해나가야 해요. 예전 60~80년대에는 정보망도 없고, 검증 안되던 시절에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내려오면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었던 게 남아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다’, ‘문제 있는 사람이 내려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 ⑭)



---

자료: 유튜브 화면 캡처4)5)

[그림 IV-1] 제주의 고등학교 응원문화 ‘백호기’

“학생들 간의 이질감은 물론이고,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질감이 높은 편입니다. 제주민 끼리 친밀감이 높아 타지인은 파고들기 어려웠지요. 학교의 부모 모임이나, 반 내 책임 분당 등에서 타지인에게 불편한 일, 귀찮은 일을 밀어내 본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며 타지인은 안 좋은 것, 나쁜 업무를 주

---

4) Human LCD - Jeju football tournament (<https://youtu.be/n-3JJryNEm4>)

5) SOUTH KOREA SUPPORT ([https://youtu.be/6R1n7pf\\_rIE](https://youtu.be/6R1n7pf_rIE))

고 현지인들끼리 좋은 것, 좋은 일들을 독차지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 중에 전라도 출신분이 2명 정도 계셨는데, 학부모들끼리 그들을 야단치고 왕따 시키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육지에서 들어온 교사나 교육계층은 배타적인 생태에 적응을 못하고 이동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응답자 ⑫)

“제가 08학번에 입학할 때만 해도 서울 시내 대학에 입학한 제주 출신 학생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부터인가 그런 모임들은 안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세대는 권당 문화가 굉장히 두텁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제주민이어서 더 친하고 이주민은 배척 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자 ⑤)

“아무래도 지역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보다는 서귀포는 농촌위주의 농가들이라 권당 문화가 더 썰 거예요. 우리도 어르신들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걸. 근데 그 어른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돌아가시니까 갈수록 좀 덜해질 거예요.” (응답자 ⑨)

- 토착민과 이주민 모두 좁고 강한 연결의 관계가 지속되는 곳이라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고교 중심의 독특한 연대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고교의 응원문화를 통해 소속감과 동시에 공동체 문화의 협동심과 애정을 기르는 제주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짐
  - 과거 정보력이 부족하던 시절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남아 지금도 토착민 그룹에 이주민이 쉽게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 이주민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한다기보다 제주를 지켜온 ‘보호본능’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토착민 의견이 드러남
- 강한 연대를 보이는 제주 권당 문화는 이전 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에서는 사라져가는 추세임

### (3)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

“제주는 분명 한국이지만,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먼 외국에 나간 것 같은 걸쳐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응답자 ③)

“제주에서 결혼하려면 남자가 집도 구해오고 여자 쪽에 혼수비도 보내야하는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선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분담하거나 아니면 집과 혼수를 같이 분담하기도 하는데. 제주에서 결혼은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응답자 ④)

“우리는 어릴 때 ‘도깨비 만난다 어서 자라’고 교육받았는데 육지 사람들은 밤에 노는 문화가 있잖아요. 또 제주사람이 보기에 낯선 것 중에는 태풍이 불면 무서워서 집에 들어와 있는데, 육지 사람들은 구경하러 바다에 가더라구요.” (응답자 ⑤)

“생업의 기반이 다르다보니 어울리질 못하는 거겠죠. 농사짓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동질성이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될텐데. 이주민들이 연대가 안 되니까 외로워서 제주 적응이 어렵다하는 거겠죠.” (응답자 ⑥)

“제주에 편히 쉬려고 내려온 사람들 중에 주변에서 나는 소통냄새에 신경질부리며 촌스러운 동네라 말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창문은 열지 않고 안에서 에어컨만 틀고 있는 거죠.” (응답자 ⑧)

“리 사무소에서 동네에 방송하는 걸 시끄럽다며 민원 제기하는 육지 사람들이랑 마찰이 있을 수밖에요. 마을일보단 자기생각만 하니까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마을 주민 중에 유독 예민하게 이주민에게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주민의 태도도 문제라고 봐요. 특히 이주민들은 지역 주민행사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부녀회 행사나 풀베기 행사, 마을 정책적으로 꽃길이나 돌담길 정비 같은 일들에 팔을 걷어붙이려 하지 않아요. 땅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많은데, 이주민

이 땅을 사서 왔는데 측량해보니 마을 도로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자 ⑭)

- 제주에서의 생활문화와 현실적인 문제 등은 살아가기 전엔 알 수 없다는 응답이 높음
  - 제주의 결혼문화에 준비 못한 젊은 계층들의 어려움 호소가 있음
  - 일상적인 것들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이 비릇된 것이 많음
- 관광지 제주의 모습 이외의 현지인의 문화 이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함
  - 환상과 현실을 분리한 제주 생활의 개념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의 부족함
  - 생활 기반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도시 환경과의 비교에서 오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적응을 어려워함. 이주자의 준비 자세에 대한 문제점과 사전 교육에 대한 부족이 발견되는 부분임

#### (4) 의식 차이

“제주도는 남자보단 여자가 더 주도적이고 생활력이 강해서 그런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이주민 여자들을 이해 못하고 질시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은행이나 공기업 등 발령받아 내려온 사람들의 처들은 대부분 살림만하는 주부인데, 80세가 넘으신 나이에도 밭일이나 굴 농사로 바쁘신 제주 어머님들은 육지 것들은 놀고먹는다며 지나다니다 만나면 타박하시거든요. 발령받아 따라 내려온 주부들이 정착하기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응답자 ①)

“예전엔 제주에서 ‘소로 못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났다’고 말했죠. 지금이야 딸들도 대학공부 다 시키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엔 남아 선호사상이 강하고 여자를 천대 문화가 있었어요.” (응답자 ⑨)

“결혼하고 나면 부모와 같이 식사를 같이 안한다고 하더군요. 가까이 살던, 같이 살던 간에요. 제주는 유교문화가 깎듯한 곳이라지만 이런 부분은 신기해요.” (응답자 ①)

“제주는 어른들을 모시고 살지 않아요. 척박한 땅에서 억척스럽게 생활하다보니 자주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대요. ‘내꺼는 내가 챙긴다’는 생각이 강하고,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자 ⑩)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엘리베이터에 흘렸는데 외지인의 잘못이라며 할머니 한 분이 집문을 크게 두드리면서 음식물 흘렸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온갖 욕설을 하고 사라진 적이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저에게만 그러셨는데, 여자들에게 아주 막 대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응답자 ⑫)

- 이주민 여성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충돌이 세대격차로 나타남
  - 제주가 모계사회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민 여성의 가정주부로서의 한정된 역할은 이해가 어렵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지점이 보임. 토착민과 크고 작은 마찰로 정착에 위기가 있음
- 발전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여권(女權) 갈등을 보임
- 유교 문화권에서 어른에 대한 예절과 상충되는 생활양식에 모순을 느끼고 있는 이주민들
  - 제주민의 생활 풍속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자료들이 전무함
  - 예를 들어 제주의 ‘안거리, 밖거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제주 여성의 자주적 성격과 결혼과 독립된 가정의 문화와 같은 내부 문화 이해자료가 절실함

## (5) 무속 신앙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 중에 미신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 시청을 예전에 무덤자리였던 곳에 신사옥을 지으면서 이사시킨 시장님이 방어 축제 때 해상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때문인지 아직도 서귀포는 시청을 이전하지 않고 구 시청 신 시청으로 양쪽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 시청에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응답자 ①)

“제주에선 어르신들한테 살아계실 때보단 돌아가셨을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도 ‘나 죽으면 제사 잘 지내 줄 거지?’하고 늘 묻곤 하셨는데, 지금 잘해주기보다는 죽은 후에 제사에 대한 부탁을 신신당부하셨죠. 조상에게 잘해야 복 받는 다 생각을 늘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가 잘 살게 된 거라 생각해요.” (응답자 ⑨)

“도깨비가 나오는 땅이라며 개발이 안 된 땅이 많았다 들었어요. 그 중 한 곳이 지금 서귀포 쪽에 있는 이마트 자리도 개발이 안됐던 불모지라고요. 제주민들은 미신 때문에 개발을 미뤘지만, 이주자들이 지대를 높이니까 주민들 간 불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미신에 묶여 개발이 안됐던 다른 땅들도 중국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사들이고 다시 비싸게 팔고 있다고요. ‘제주에선 부동산이 창조경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걸요.” (응답자 ⑮)

- 생활 문화권에 깊숙이 자리 잡은 토착신앙에 대한 이해와 제주민의 두려움
  - 제주의 토착신앙이 집단문화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임
  -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과 준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
  - 이주민의 경우, 토착민의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없음
  - 발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 미신, 토착신앙의 역할

## (6) 관계적 집단문화

“제주의 결혼식은 전통문화로 봐야 해요. 예전엔 3일 잔치로 진행됐지만,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서 당일 잔치, 하루 잔치로 진행되거든요. 결혼하는 사람도 초대받는 사람도 요즘은 부담스러우니 하루 잔치로 진행되겠죠. 물론 지금도 3일 잔치를 진행하시는 집들도 있고, 시골에는 돼지를 잡아 잔치하던 문화도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요. (면접자 질문: 서울에선 예의상 참석 한 결혼식에 축의금을 3만원 정도 주는 것과, 일본의 경우도 제주처럼 결혼을 파티로 진행하는데 축의금을 20만원 이상 주지 못하면 참석을 스스로 자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는 어떤가요?) 축의금은 보통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부부가 아는 지인의 결혼식에 가더라도 봉투는 따로 준비해요. 제주에선 답례품 문화도 있는데 보통 세제, 잡곡, 제주사랑 상품권 같은 생필품을 결혼식에 와준 분들에게 선물해요.” (응답자 ⑩)

“제주에서 결혼은 주말 오전 11시에 예식을 치르고,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잔치를 해요. 예전엔 3일 잔치를 했지만 요즘은 하루 잔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서울에서처럼 1시간 예식, 2시간 피로연은 없어요. 안 해요. 잔치를 오래하는 이유는 아마 밭농사나 바다 일 등 일이 많은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시간 맞춰 한꺼번에 오기 힘들니까 오래 잔치를 여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게, 편한 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요. 친한 친구나 친척의 경우는 종일 함께 자리를 지키며 잔치를 도와주는데 수눌음이라 해요. 공동체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답례품인데, 이걸 안하면 욕먹어요. 꼭 해야 해요. 제주에선 중요해요. 정(精)이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의 표시로요.” (응답자 ⑤)

### ○ 결혼 예식은 잔치로 진행되는 제주 문화

- 제주의 결혼식 잔치 문화와 수눌음, 관계중심의 공동체에 대하여



이주민들의 이해가 매우 낮았으나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결혼 예식과 잔치, 답례품 문화 기본이며, 이주민의 경우 제주 전통 잔치와 같은 내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였음(응답자 중 제주 결혼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없었음)

## 5) 교통 :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

- 여유롭고 평화로운 제주의 이미지와 달리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

### (1) 난개발로 교통 혼잡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육지와 왕래가 거리도 있고 이동이 쉽다 할 수 없죠. 비행기가 자주 다닌다고 해도 섬에서 육지로 건너가야 하는 거니까요. 항상 공항은 포화상태에 발권이나 검색 등의 시간도 너무 복잡해요.” (응답자 ①)

“관광객들이 렌트카를 타고 기분 따라 도로를 질주하는 것도 문제일거고, 갈수록 자동차가 늘어나서 단위 면적당 차 밀도가 높아지니 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응답자 ③)



자료: KBS 2016년 9월 15일 뉴스

[그림 IV-2] 평일에도 북새통인 제주공항

- 관광객으로 포화된 공항과 단위면적당 자동차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토착민 및 이주민 모두 불편을 호소함
- 관광지로서의 제주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삶이 공존하는 공간임이 소외됨

## (2) 주차장 부족

“바닷가에 한번 나가려면 차들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나요. 공용 주차장이 있기는 복잡하고 늘 만 원이에요. 게다가 진입로며 주변 도로까지 정신없고요. 불법주차는 시내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응답자 ⑬)

“제주가 한적하고 여유 있는 곳이라 생각하겠지만, 제주의 교통 혼잡도는 서울보다 더 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고도 많고요. 우선 차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엔 제주를 가로질러 다니는 게 1시간이면 되는 거리였는데, 이젠 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고, 시내도 복잡해요. 차가 많아진 만큼 주차 공간도 늘어야하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길을 지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응답자 ⑮)

- 무분별한 개발과 허가로 차량 증가와 주차에 대한 수요예측의 부재
- 제주시 전체의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며, 통행에 장애가 됨



자료: 직접 촬영

[그림 IV-3] 불법주정차로 복잡한 도로

### (3) 지역 격차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고, 요즘은 버스 어플로 언제 오는지 체크도 잘 돼서 편하죠. 근데 시외버스의 배차 간격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라산을 넘어 섬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버스들은 배차 간격 1시간이라 아직도 격차가 있게 느껴져요.” (응답자 ⑤)

“제주 걷기용 길도 좋지만, 자전거 길도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에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같은 걸 건조하시는데, 지나가는 사람

과 마찰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일부러는 아니지만 순식간에 밝게 되거나, 급히 피하려다 다칠 수도..” (응답자 ⑨)



자료: (좌)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우)서울신문 2016년 7월 20일자 기사

[그림 IV-4] 제주환상 자전거길

- 대중교통 시설 이용에 관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 자전거 길의 목적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변질되기도 하며,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보임

## 6) 상권 : 창업을 위한 자금, 노동력, 판매, 유통 등의 환경

- 제주 이주자들은 1차 산업인 농업형 귀농 이주보다는 3차 서비스 산업의 사업형 이주가 많은 것이 특징임
  - 대도시의 사업 환경과의 차이로 제주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임

## (1) 노동력 확보

“제주의 억척스러운 여자들과 달리 남아선호사상에 남자들은 일을 안 하려 해요. 건설 붐이 일어서 여기저기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지만, 초창기 공사장 인부들로 골치 썩었던 일들 이후 대부분은 전라도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있어요. 외지의 사람을 데려와 쓰려면 숙박비, 인건비, 식비를 더 지불해야 해요.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일하다 말고 말도 없이 딴 데 가버리거나, 자기 맘대로 쉰다거나 야간작업 같은 일은 아예 안하려 하고요. 8개월이면 걸릴 일을 2년이 넘도록 끌고 가니 어디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응답자 ①)

“여기선 제주 남자는 건설 노동자로 쓰지 않아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제주 남자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잡부들도 육지 사람을 모집해와 일을 하게 해요. 전라도 인부들을 많이 데려오는 편인데, 육지 데려올 때 1.5배 급여를 줘야하고 숙소며 밥 제공하는 것까지. 이걸 다 감안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게 1주일이면 끝날 일을 3개월간 일해요. 그리고 제주의 일이 많아지고 발전하는 것들이 대기업만 돈 버는 일이라고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말하거든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제주에 세금이 많이 확보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응답자 ③)

“제주남자는 한량이에요. 변방인 곳이고, 경쟁이 없었으니 그렇게 살아왔어도 문제가 안됐었던 거죠. 점심식사에도 술을 마시며 일을 하고, 걸핏하면 연락두절이고, 일하다 말고 사라지는 것도 다반사고요. 타지 사람을 괴롭히려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제주 남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도 사랑으로 껴안고, 경쟁력 갖출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응답자 ⑭)

- 부동산 개발 붐과 함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제주 토착민의 노동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함

- 전라도 등의 외부 노동력이 제주 개발에 확보되고 있음
- 개발은 이주민들에게만 이득이며, 제주가 예전 모습을 잃어간다는 토착민의 의견에 갈등 정서가 느껴짐

## (2) 질차주의 vs 신뢰주의

“국내, 국외 관광객들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차별하는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그들에게 돈을 벌면서도 배타적으로 대하고, 제주 외 지역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차별, 불이익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던 걸 예로 들면 역삼동에서는 5분이면 받았던 것을 제주에서는 2주가 걸리더라구요.” (응답자 ③)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도 서울분이신데, 초창기 고객을 만나면 ‘제주도 사람이세요?’ 질문부터 시작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하더라구요. 제주사람인지 아닌지, 제주대를 나왔는지가 사업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조기 축구 활동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간격을 좁히려 애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응답자 ④)

“저도 비닐하우스 건축 허가를 위해서 관할청에 찾아가도 기다리게만 하고 승인이 안 나더라구요. 몇 날이 지나도 안 되길래 동네 어르신 한분에게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같이 가주셨는데, 어르신 오셨냐고 인사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승인을 내줬던 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주는 인맥사회이다 보니 그 지역에서 신용 있는 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8~90년대에만 해도 육지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 내려와 사기치고 많이들 달아나고 했으니까. 제주민이 사고 치면 도망쳐도 친인척들이 남아있으니 괜찮지만, 이주민은 도망가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전엔 전화도 없고 했었으니까 더욱이요. 제 경우도 믿을 만한 동네 어르신이 움직이니 금방 해결된 거겠

죠.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려다보니 시간이 걸리던 일이었는데, 정서적으로 현지인이 먼저라 생각하는 거겠죠.” (응답자 ⑭)

“제주도는 특별 자치도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앙법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도는 아니어도 타지인들에겐 벽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제주 안에서 살아가는 룰을 만들고, 살아가는 형태를 만들어 낸 거니까요. (응답자 ⑩)”

○ 행정 처리와 관련된 일정에 모순을 느끼는 이주민들

- 이주민에게는 절차대로, 토착민에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일처리가 진행됨. 제주에서 겪는 어려움에 인맥사회에서 차별받는다든 인식의 팽배함

○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주만을 위한 배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룰(rule)로 인식됨

(3) 지역문화와 발전의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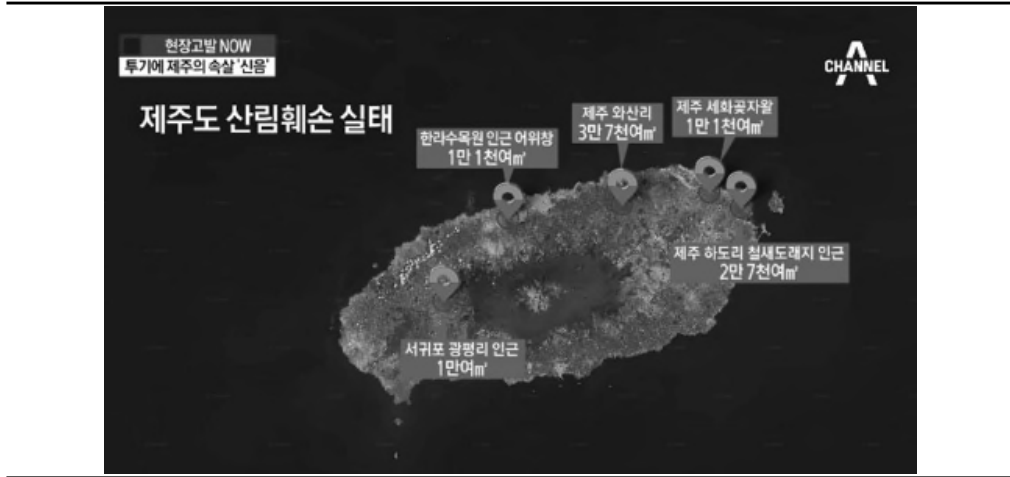
“잘되는 가게들은 거의 이주민이 운영하는 곳인데, 제가 느끼기에 토착민을 안 껴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카페나 맛 집 등이 제주민들은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이주민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행을 만들면서 제주사람들에겐 안 알려주는 거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자기네 커뮤니티는 유행을 만들고, 서구식의 감각적인 느낌을 살리는데 원주민들은 투박하고 촌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지역적인 교감 없이 장사하는 것 같아 문제라고 봐요. 카페나 유명한 관광지가 된 곳들은 자기네가 메인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제주의 환경을, 자연을 보러 와서 즐기는 거지, 자기네 카페를 오려고 제주에 온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주를 살리는 것이 메인이 되고, 그리고 장사하려해야지, 내가 제주의 문화를 창조한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제주 덕에, 제주의 환경과 자연 덕분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제주에 몸을 맡기고,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제주는 자연 80% 이상, 그 외 관광거리들이 20%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네 식당에 오고 싶어서 자기 덕분에 힐링 한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제주 덕분이다 생각하며 제주를 살리는데 힘써야 해요.” (응답자 ⑭)

“저 어릴 땐 플리마켓 이런 건 제주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보면 예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파는 세련된 형태의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주민들에 영향을 받아 제주도도 후발대로 우후죽순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이주민들 따로, 제주민들 따로 장터를 열고 있어요. 이전에 없던 것이 멋지게 생겨나는 건 좋지만, 더불어 살기가 안 된 느낌을 받아요. 맛 집이라 인터넷에 떠드는 곳은 다 육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터를 잡아도 그들끼리, 장을 보러가도 그들끼리, 제주에 살면서 육지를 오가며 세련된 것들을 가져오지만 그들끼리만 하는 것 같아요. 잘되는 가게들이 이주민들 가게이고, 보기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제주민과 이주민의 교류장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도의 주축으로 이뤄지면 좋겠죠. 일부로라도 만들어서 그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응답자 ⑩)

“발전이 급격히 이뤄지다보니 문제도 많은데, 땅 소유권분쟁이 일어나도 제주 도청이 중재를 안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 재산권 문제라며, 구청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나몰라라해버리니, 토착민과 외지인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분쟁이 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무분별한 개발에도 나 몰라라 하고요.” (응답자 ①)





자료: 채널A 2016년 8월 27일 뉴스 화면 캡처

[그림 IV-5] 제주의 자연환경 경쟁력의 위기

- 개인 사업 등 서비스 산업 관련분야에서 이주민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음
  - 이주민의 카페나 식당 등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토착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 제주의 경쟁력의 큰 원천인 자연의 보존보다는 개발 논리를 앞세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4)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는 발전

“무분별한 난개발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 지역과 밀접하게 교감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요. 해안도로를 다녀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오합지졸이에요. 우리도 유럽 같은 관광지가 되려면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그 지역과 함께 앞으로 100년을 갈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생각해봐야 돼요. 그 지역에

꼭 맞고,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나. 제주도의 가치를 철저히 존중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해요. ‘내 카페가 최고다’는 식의 장사는 안돼요. 유럽은 작은 호텔도 예약을 위해 2~3년 대기하고 기다리는데, 내가 최고다 경쟁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가치에 잘 맞고 역사적인 장소들이잖아요. 제주엔 이런 곳이 없어요. 서울의 속도에서 벗어나려 내려와서는 여기서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제주는, 시골은 특히 사람 사는 맛이 중요하다고 봐요. 키르키즈스탄 같은 경우는 지역 센터가 관광지를 운영하는 하고, 여행사 같은 기업들의 바가지가 없도록 한다는 데 이번 휴가에 다녀보고 체험해보려고요.”(응답자 ⑭)

“제주에 내려와 산다고 하면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지만, 글썄요. 처음엔 좋았는데 계속 살다보니까 특별히 제주다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썰튼 서울 같다고 해야 하나. 바다가 창문너머로 보인다는 거 말고 제주다운걸 뭘로 말할 수 있으려나..” (응답자 ⑬)

“마을에 도착한 정취 느껴져야 하는데 지금 제주는 개발에 바빠 관할 지자체도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올레 길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주민들의 담벼락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초창기 올레 길과 지금의 올레길, 그리고 그 주변의 마을 경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응답자 ①)

“어릴 때 등곶길에 걷던 큰 길말고 좁다란 골목길이 있었어요. 아기자기하고 예뻐했는데, 얼마 전 찾아가보니 그 주변이 몰라보게 변했더라구요. 돌담을 넘어 보이던 풍경이 참 예뻐했는데..” (응답자 ⑩)

#### ○ 제주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제주

- 전통을 유지하며 발전해나가는 제주를 기대하는 토착민들

#### ○ 무분별한 도시화로 제주다운 매력을 잃어가는 제주

### (5) 유통 및 판매처 관리

“농가나 시장, 길가에서 파는 것들 중에 기념품으로 선물하면 좋을 것들이 보이는데, 그곳에 가서 사지 않은 이상 다시 다른 곳에서 살 방법이 없어요. 제주 공항이나 상점에 가면 감귤 초콜릿이나 감귤 과자들이 쌓여있는데, 이젠 친구들도 이런건 사오지 말라고 해요.” (응답자 ⑬)



자료: 직접 촬영 / 좌: 귤하르방 주스, 우: 청귤 말랭이 · 하르방 양초

#### [그림 IV-6] 6차 산업의 유통처 모색의 필요

“과거에 제주에도 백화점이 있었어요. 챔피언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없었던 건지 운영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소비문화라는 것도 없고,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층도 많고, 관광객도 많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는 육지보다 잘되는 것 같지 않지만, 제주 제품에 대한 소비는 확실히 있는 편이니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⑩)

“요즘은 농가에서 6차 산업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고,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도 해요. 생협으로 납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두 생협으로 납품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응답자 ⑨)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는 것(outbound)에만 시의 지원이 있어요. 이런 지원이 고맙긴 하지만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주로 들어오는(inbound) 제품들의 운송을 위한 지원은 없거든요. 양초를 만들려 해도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말이죠. 좋은 제품들의 유통처 모색이 필요한 만큼, 다른 지원이 필요한건 없는지 시에서 더 관심 가져야 해요.” (응답자 ③)

“코사, 킹, 유월마트 같은 작은 체인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이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동네 점포들이 경쟁력을 잃은 편이에요. 관광객들도 잘 정비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제주에 백화점이 과거에 운영이 안됐었다지만, 면세점이 저렇게 잘되는 거 보세요. 외국 관광객 말고도 국내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제주 안에도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이 필요해요. 상업 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소비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 취향에 맞는 곳들이 생겨야 해요. 또 대형화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해서 작은 동네가게와 주민들의 경쟁력 높여줄 수 있다고 봐요. 일본의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마을의 가게들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거죠. 일본은 Duty free을 개인 샵들도 신고해서 차릴 수 있고, 1만 엔 이상 구매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거죠. 동네 가게들의 경쟁력은 저절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산업이라 해서 저가로 모집해 여기저기 쇼핑으로 끌고 다니며 제주 이미지를 망칠게 아니라,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보여주고, 돈도 쓸 수 있게 유도해줘야 해요.” (응답자 ①)

#### ○ 제주만의 특색 있는 상품의 부재

- 6차 산업을 통한 상품개발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유통처 확보가 어려움

○ 소비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 관광객이 돈 쓸 곳이 마땅치 않는 제주의 현실임
- 거주민 역시 쇼핑공간이 넉넉지 않은 실정임
- 개인 상점들도 Duty free 가능한 일본의 벤치마킹이 필요함

## 7) 정책 : 이주정착, 생활, 적응 관련 정책

- 관광지로써의 제주에 대한 정보량과 달리, 거주지이자 생활문화권으로써의 제주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1) 주거 문제

“제주에 이주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집 찾는 일이었어요. 제가 정착을 위해 내려왔던 때가 11월이었는데, ‘신구간’이라는 것도 와서 알았고, 전세는 거의 없고 ‘년세(year rent)’밖에 없는 게 충격이었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신구간이 아니어서 집값도 비싼 편이었고, 제 조건에 맞는 집 찾고 정착하는데 거의 1달을 군대 동기의 집에서 신세를 졌었어요<sup>6)</sup>. 생각지 못한 년세 개념에 놀라 대출이나 정착 지원금 등을 알아봤지만, 귀농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주 정책들이고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젊은 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없었어요. 제주에 내려와 살고 싶은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제주의 주거 조건에 꼭 알아야 하고,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④)

“제주에 신구간에 부동산 계약기간의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

---

6) 응답자 ④는 서울태생이며, 군생활을 제주에서 해양경찰로 근무하였음. 다른 이주민과 달리 제주 토착민과 정서적으로 내집단(in-group, 內集團)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정착과 관련된 독특한 제주의 생활 문화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몰랐다고 함.

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기간이 아닌 경우에 이사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일 거예요. 전세는 없다고 봐야하고, 매매가는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려오면 이젠 안돼요. 대학생이나 이제 자립을 시도하는 젊은 층들은 년세의 부담에 정착이 쉽지 않은 곳 이에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월세도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응답자 ③)

“제주에서 ‘한달살이’가 유행이라는데, 저희도 노는 방을 내놓을까 해요. 시골집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게 제주는 주거 공간을 안거리, 밖거리로 구분했거든요. 한달살이가 7~80만원 선이고, 공과금도 별도로 받는다 하던대. 한번 해볼까봐요.” (응답자 ⑨)

“친구가 신제주에 있는 아파트에 한달살이로 나와 있는 방에서 휴식기를 갖으려 내려와 있어요. 보내고 있어요.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방 한 칸을 자취생처럼 쓰는 건데 70만원이라는 거예요. 저라면 파리로 갈 거 같아요. 한달살이로 검색해보면 파리는 아침,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는데 80만원에 나온 것도 봤는데... 주거 관련해서는 제주는 너무 비싸요. 지금 사는 집은 LPG 주택이라 난방비가 비싸서 겨울엔 그냥 가스 충전한 난방 기구를 사용해서 써요. 보일러 난방비는 엄두가 안나요.”(응답자 ⑬)

#### ○ 제주에서의 정착을 위한 주거 문제

- 외지인들은 알지 못했던 제주의 독특한 생활문화인 친구간과 이사 문제의 불편함
- 년세(year rent)와 보증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젊은 계층의 어려움
- 농업 정착자 위주로만 진행되는 정착 지원금의 아쉬움

#### ○ 제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달살이 프로그램

- 프랑스 파리(Paris)보다 높은 제주의 거주비용의 실태 확인가능

○ 주거 난방시설의 노후함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Gap Year Project' website. The header features the logo 'Gap year Project' with the tagline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 and a photo of two young women. Below the header, there's a search bar on the left with filters for '금액' (Amount), '기간' (Duration), and '사용언어' (Language).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ll program' and '프로그램 전체보기'. A specific program is highlighted: '[GEH016] Bonjour! 프랑스 파리에서 한 달 살기'. Details include:
 

- 프로그램: 글로벌 스토리
- 신청기간: 2016.03.15 ~ 2016.12.31
- 진행기간: 2016.03.15 ~ 2016.10.31
- 참여인원: 제한없음
- 지 역: 유럽
- 기 간: 최소 30일
- 참가비용: 별도문의
- 책임비용: 없음
- 선택①: 30일 (29박 30일)
- 30일 (29박 30일) 800,000 X
- 총 비용: 800,000 원

자료: 갭이어 프로젝트 화면 캡처)

[그림 IV-7] 파리에서 한 달 살기

(2) 낮은 임금과 높은 생활물가

“서울에서 받던 급여에서 3/4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저녁이 있는 삶’을 생각하며 여유를 찾아 내려왔는데, 야근하고 일 많은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서울만큼 치여 사는 건 아니지만요. 채용을 할 땐 ‘도민우대 채용’이라는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데 이런 우대채용에 이주민으로서 설 자리가 별로 없다고 느껴져요.” (응답자 ④)

7) 한국갭이어(<http://www.koreagapyear.com/>)

## ○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모집인원 |
|------|------|---|------|
|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br>- 경력 : 무관<br><br>[우대사항]<br>- <u>지역도민우대, 경력자 우대.</u> | 5명   |

## ○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모집인원 |
|------------|---|--|------|
| 계획설계부:설계관리 | 1. 설계단계(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도면 심사업무<br>2. 설계협력업체와 커뮤니케이션<br>3. 설계도서 심사회의 및 설계변경업무<br>4. 건축설계 관련 본사 지원 업무<br>5. 설계도서 및 회의록 정리 | - 학력 : 대졸이상<br>- 경력 : 경력1~3년<br><br>[우대사항]<br>- 외국어 : 영어 TOEIC 500점 이상<br>- 유관업무 경력자(3년), <u>제주도민 혹은 제주에서 대학교 졸업자 우선</u><br>- 인테리어 기획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경력보유자 우선 | 1명   |
| 대리 이상      |   |  |      |

자료: 잡코리아 구인화면 캡처8)

### [그림 IV-8] ‘제주도민 우대’ 자격요건

“놀러왔다 정착하게 된 거라 돈 욕심은 애초에 크게 없었어요. 돈 별 생각이었다면 제주에 남아있지 않았겠죠.” (응답자 ②)

“제주는 월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이주자들이 3년 이상 버티기 힘들어 하는 것도 임금은 너무 싼데 물가는 갈수록 올라서 그 갭을 많이들 어려워하죠. 특히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40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최저시급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지키기는 하는데, 딱 그만큼 지키니 제주 젊은이들이 일하러 육지로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응답자 ③)

8)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 제주지역 모집 공고들 중 (2016년 9월 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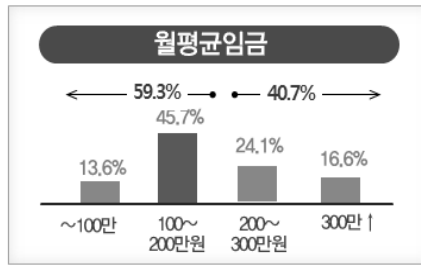
“물가가 너무 비싸요. 서울에선 간단히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여기선 외식비가 특히 더 비싼 것 같아요. 웬 만 해선 집에서 해 먹어요.” (응답자 ⑬)

“제주엔 2차 산업이 없어서 직업이 한정적이에요. 1차 산업인 농민이나 3차 서비스 산업인 근무자들뿐이고, 공무원이나 선생님 은 최고의 직장이지요.” (응답자 ⑩)

“제주는 직장 없고, 직업 없고, 인건비 싸. 그러니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아서 제주로 보내라 했겠지.”(응답자 ⑧)

“고용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곳이에요. 수직적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고나 할까요. 고용주가 직원을 노비 대하듯이, 종 놈 부리듯 부려먹고 굉장히 경직된 계층 구조처럼 느끼게 했어요. 말투도 썰다 보니 더 그렇고요. 돈만 있으면 제주는 살기 최고의 장소이지만, 사람 문화는 적응하기 어려워요.” (응답자 ⑮)

- 전국 최하위 급여, 높은 생활 물가에 버티기 힘든 이주민의 삶
  - 제주에 필요한 정보들이 부족함, 낭만을 쫓아 이주한 제주의 현실에 기대 대비 실망의 폭이 너무 커 소외와 실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 고용구조
  - 도민우대 채용에 제주에서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생각하는 이주민들의 불안함
  - 권위적이고 경직된 기업문화에 적응이 쉽지않은 이주민의적 어려움



자료: 2015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그림 IV-9] 만 19~64세 제주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 전국 최하위 급여에 힘겨운 버티기 중인 이주민들

- [그림 IV-9]는 제주의 만 19~64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임. 200만원 미만 59.3%, 100~200만원 미만 45.7%, 300만원 이상 16.6%로 나타남
-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2015)」 결과, 5인 이상의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전국 330.5천원이며, 제주는 245.5천원으로 제주가 16개 시 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전년 동월대비 임금 총액 증감률은 16개 시 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하락함

### (3) 부동산 개발

“분양조건이 제주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자들에게만 주어지거든요. 분양권 프리미엄을 놓치기 전에 저도 집 한 채 사고 싶어요.” (응답자 ④)

“‘외지인은 땅 투기하러 내려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자연이 좋아서, 제주 환경이 맘에 들어 휴양차 이주하던 7~8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른 편이죠. 요즘은 자연도 좋지만, 부동산 차액을 노리거나

카페, 식당을 운영하려 사업차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저런 개발의 논리로 마을 주민과 동화 안 되고, 공동체가 되려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 돈 벌고 튀고, 난개발하고 있다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응답자 ⑭)

“부동산으로 재미 좀 봤다는 얘기를 들으며 부럽죠. 3년 전에 시골에 허름한 집을 8천만 원에 사 둔 게 지난 6월에 2억 5천에 팔았다는 얘기를 엇그제 들었는데 난 뭐했나 싶어요. 지금은 제주의 땅을 사려해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팔렸다고 하던데요.” (응답자 ⑬)

“부동산 경기가 올라서 제주민들은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집이 여러 채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가운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높은 값에 팔게 된다면 이사 갈 집은 더 비싼 값을 줘야 할 테니까요.” (응답자 ⑤)

#### ○ 제주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토착민과 이주민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

- 이주민의 부동산 거래 방식이 달갑지 않은 토착민들
- 부동산으로 이익을 남기는 경우는 투자 이주민들이 대부분임. 외지인들의 분양권 확보나 매매 등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배타심을 드러냄

#### (4) 언론의 역할

“제주 언론을 비롯해서 다수의 언론들이 제주의 상황을 오픈해야만 해요. ‘제주는 환상의 섬’ 이런 이미지로만 TV에 나오고, 그걸 상상하며 내려온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여행지의 환상만 가져오면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이런 점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 올레코스가 좋다고만 떠들지 수많은 불상사들에 대해선 모르고 있잖아요.”

(응답자 ⑭)

“전에 멋모르고 바닷가를 걷다가 완전 겁에 질린 일이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할머니들이 뛰어나와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욕을 하시는데. 전 그냥 걷다가 사진 찍으러 바위 위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귀청 터지게 호루라기를 부는 아저씨에, 제주 사투리로 욕하며 달려드는 할머니에...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빠져나왔나 기억이 안나요. 제주 해녀를 문화유산으로 관리하자는 뉴스만 봤었지만 해녀들이 일하는 바다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몰랐어요.”

(응답자 ⑬)

---

### "제주에서 '바룻잡이' 체험 놓치지 마세요"

김태연 기자 imty@jeusori.net 2014년 07월 31일 목요일 17:31 0면



---

자료: 제주의 소리, 2014년 7월 31일자 기사

[그림 IV-10] 바룻잡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주 현실과 다른 언론의 보도



자료: 한라일보 TV, 2016년 5월 25일 동영상 뉴스 화면 캡처

[그림 IV-11] 바다 사용권 갈등 언론 보도

“제주 바다가 제주 꺾 줄 안다니까. 제주 도지사가 해녀 어머님들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까 갈수록 더 하는거 같아요. 들리는 소문엔 해녀 할명들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라는데. 왜 세금을 그리로 쓰는지... 어릴 땐 바다에 놀러가 소라잡기 하고 놀았거든. 바룻잡이하며 놀았다고. 이젠 바다 근처도 못가요. 우리도 적응 안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 온 사람들이 어촌계 사람들에게 혼 나는거 보면 이견 아니다 싶어요.(응답자 ⑨)”



자료: 한라일보 2015년 11월 24일자 기사

[그림 IV-12] 제주 곳곳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범죄 없는 마을’ 돌비석

- 현실과 거리가 먼 언론의 보도에 불편해하는 토착민과 이주민들
  - 제주 곳곳의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는 지역신문에 잠깐 소개되고 마는 편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만 강조된 언론에 기대감을 부풀려 제주에 내려오게 됨
  - 제주 3無 중, ‘범죄 없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임. 지역신문에 비중이 낮게 실릴 내용이 아니라 제주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어촌계의 바다 독점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내는 토착민과 이주민들
  - 언론의 ‘바닷잡이 체험행사’는 단기적 바다 사용의 일부 사례만 기억나게 함
  - 불과 얼마 전부터 어촌계의 바다 아용 독점현상이 시작된 행정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불편함을 드러냄
  - 제주 환경 적응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과 어촌계의 불화가 빈번함

## (5) 전시 행정의 개발이 아닌 지역 경쟁력을 갖춘 개발

“한라산 아래쪽 서귀포는 겨울에도 따뜻해요. 1월에도 영상의 날씨에 바람도 안부는 곳이니 꿈을 벤치마킹해서 생각해보면 동계훈련 장소로 최적이죠. 근데 문제는 훈련장이라 할 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에 운동장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소용 없더라구요. 서귀포에 날씨를 알고 전국 프로팀과 외국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안타까울 노릇이죠. 운동할 대만 있으면 오겠다고 연락오고 있는데. 제주시엔 훈련시설이 있지만, 서귀포와 4~5도의 온도차이가 나고 바람이 강한 곳이라 훈련에 적합하지 않아요. 서귀포엔 대포 ICC컨벤션센터에 연습장이 있는데, 그쪽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라 훈련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전시행정으로 지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따뜻한 남해, 양산으로 제주에서 유치할 수 있는 전지훈련 선수들을 뺀 거죠. 전지훈련은 라이벌 팀과 짝을 지어 움직이고, 프로팀, 대학팀이 같이 오거든요. 또 가족들도 함께 움직이다보니 규모가 엄청 커서 서귀포 주변 상가와 음식점, 숙박업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아까워요.” (응답자 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군요. ‘제주는 하와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다. 겨울이 있는 섬이기 때문이다’라고요. 미국에서 살던 분이라 하와이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제주에 와보니 여기가 더 좋다고 하시며, 제주의 겨울을 극찬 하셨어요. 겨울에 제주에 여행 오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 관광객들은 눈 구경을 처음 하는 걸텐데 한라산에 눈 체험장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 ⑫)

“무분별한 개발은 제주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거죠. 난개발을 했으면 그 중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쯤 있을 법도 한데 참 그래요. 여행객들은 밤에 할 게 없다고 심심하다 하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마작방이나 보드게임방, 슬롯머

신, 카지노 같은 것들이 제대로만 들어선다면 사양 산업이라는 비난보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급식 질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과천이에요. 과천 경마장의 이윤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지역 아동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좋은 예가 된 거죠.” (응답자 ①)

○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발이 필요함

- 이주민이 제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경쟁력을 진단하는 내용들에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타 지역의 관광 상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할 조사가 필요한 시점임



## V.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민개념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가

### 1. 정량적 연구 : 사회과학 조사 분석

#### 1)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사회학적 갈등요소 결과비교

-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 정량적 연구 단위로 모집단의 크기가 작지만, 연구결과의 비교에 의의를 두고 분석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 판단됨
- 이주민이 제주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7가지 문화·사회학적 갈등 요소들의 설문 응답을 통한 비교 진행됨
-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1~2차 면접 조사자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12인을 대상으로 함
  - 토착민 4명, 이주민 4명, 귀환민 2명, 이탈민 2명으로 구성되었음
  - 제주 출신으로 제주 지역정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토착민과 귀환민, 그리고 타 지역 출신으로 이주민 집단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탈민이 공통된 성향을 띠는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출생지와 거주시기를 기준으로 4가지 (①~④) 속성으로 분류하되,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공통의 속성을 가진 연구대상자를 기준으로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으로 유형화시켜 결과 분석하였음

<표 V-1> 설문 응답자 특성

| 항 목 |        | 빈도(n) | 비율(%) | 비고     |
|-----|--------|-------|-------|--------|
| 형태  | ①토착민   | 4     | 33.3  | 제주 태생  |
|     | ②이주민   | 4     | 33.3  | 타지역 태생 |
|     | ③귀환민   | 2     | 16.7  | 제주 태생  |
|     | ④이탈민   | 2     | 16.7  | 타지역 태생 |
| 나이  | 10대    | 1     | 8.3   | —      |
|     | 20대    | 4     | 33.3  | —      |
|     | 30대    | 2     | 16.7  | —      |
|     | 40대    | 0     | 0     | —      |
|     | 50대    | 4     | 33.3  | —      |
|     | 60대 이상 | 1     | 8.3   | —      |
| 성별  | 남      | 6     | 50.0  | —      |
|     | 여      | 6     | 50.0  | —      |
| 직업  | 주부     | 3     | 25.0  | —      |
|     | 회사원    | 4     | 33.3  | —      |
|     | 자영업    | 2     | 16.7  | —      |
|     | 학생     | 1     | 8.3   | —      |
|     | 교사     | 2     | 16.7  | —      |
| 학력  | 초등     | 1     | 8.3   | —      |
|     | 중등     | 1     | 8.3   | —      |
|     | 전문대    | 1     | 8.3   | —      |
|     | 대학     | 7     | 58.3  | —      |
|     | 대학원    | 2     | 16.7  | —      |

주: ① 토착민(native person)

② 이주민(immigrant person)

③ 귀환민(the person who return to his home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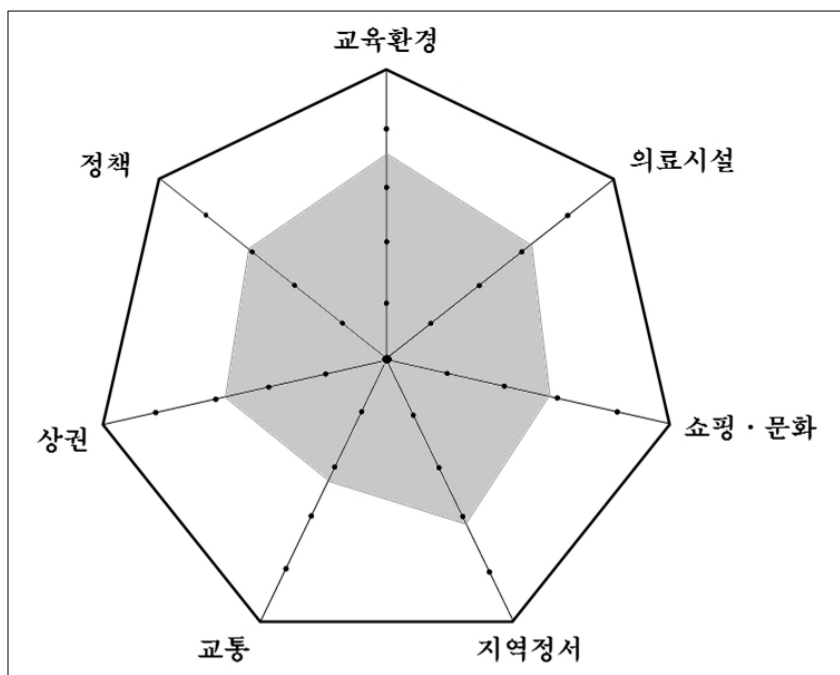
④ 이탈민(the person who leaves his home town)

○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토착민과 이주민의 집단 간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t-분석을 실시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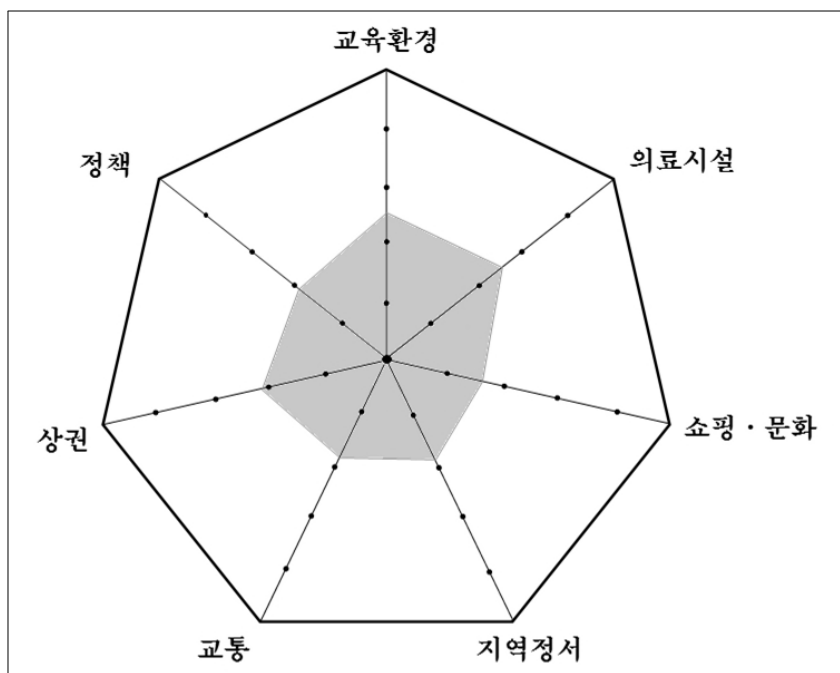
- ‘교육환경’, ‘쇼핑·문화’, ‘지역정서’, ‘상권’, ‘정책’의 요인에서 토착민과 이주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유의미하게 나타난 응답 결과 모두 토착민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주민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2> 델파이 분석의 주요 7가지 요인과 집단 간 응답결과

| 항목    | 전체<br>평균 | 출신별        |            | t    | p    |
|-------|----------|------------|------------|------|------|
|       |          | 토착민        | 이주민        |      |      |
| 교육환경  | 3.08     | 3.67(.51)  | 2.50(.54)  | 3.80 | .004 |
| 의료시설  | 2.91     | 3.17(.75)  | 2.67(.51)  | 1.34 | .209 |
| 쇼핑·문화 | 2.24     | 2.83(1.17) | 1.67(.52)  | 2.24 | .049 |
| 지역정서  | 2.49     | 3.17(.98)  | 1.83(1.33) | 1.98 | .076 |
| 교통    | 2.08     | 2.33(1.03) | 1.83(.41)  | 1.10 | .296 |
| 상권    | 2.49     | 2.83(.75)  | 2.17(.41)  | 1.90 | .086 |
| 정책    | 2.49     | 3.17(.41)  | 1.83(.75)  | 3.81 | .003 |



[그림 V-1] 토착민의 만족도



[그림 V-2] 이주민의 만족도

## 2) 사회적 거리가 사회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주민간 거리감이 사회적인 거리로 확대되고 지역간 융화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토착민과의 거리와 이주민간의 거리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제주 토착민간 사회적 교류와 거리감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토착민과 토착민 간 거리가 가까웠으며, 이주민과 토착민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표 V-3> 주민간 거리의 집단간 차이

| 항목  | 전체<br>평균 | 출신별       |            | t     | p    |
|-----|----------|-----------|------------|-------|------|
|     |          | 토착민       | 이주민        |       |      |
| 토착민 | 3.41     | 4.00(.89) | 2.83(1.17) | 1.941 | .081 |
| 이주민 | 3.58     | 3.83(.75) | 3.33(.82)  | 1.103 | .296 |

## 3) 제주 삶의 만족도와 추천의도

- 토착민과 이주민이 느끼는 제주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분석
  - 토착민과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착민의 경우 제주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likert 5점[매우 불만족(1)~매우만족(5)]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의 경우 토착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V-4> 제주에서의 삶의 만족도 집단 간 차이

| 항목                | 전체<br>평균 | 출신별       |           | t     | p    |
|-------------------|----------|-----------|-----------|-------|------|
|                   |          | 토착민       | 이주민       |       |      |
| 제주에서의<br>삶<br>만족도 | 3.58     | 4.00(.00) | 3.16(.98) | 2.077 | .065 |

- 토착민과 이주민이 응답하는 제주로의 이주에 대한 추천도 비교분석
- 토착민과 이주민의 제주로의 이주 추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착민의 경우 이주민보다 만족도가 높은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제주로의 이주 추천도가 이주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표 V-5> 제주 이주에 대한 추천도 집단 간 차이

| 항목           | 전체<br>평균 | 출신별       |           | t     | p    |
|--------------|----------|-----------|-----------|-------|------|
|              |          | 토착민       | 이주민       |       |      |
| 제주 이주<br>추천도 | 3.08     | 3.66(.52) | 2.50(.84) | 2.907 | .016 |

## 2. 관계형성과 사회적 자본

###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1) 관계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개념도출

- 토착민과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문화적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의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실시
-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 경쟁력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매개가 됨
  - 다문화 사회로 빠른 변화가 진행 중인 제주에서 다음 발전 동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부분임

#### (2) 구성개념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 [연구문제 1]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결합하여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 사회학적 갈등요소’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validity) 및 신뢰도(reliability) 분석을 실시함
-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함
-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각회전방법(orthogonal rotation) 중 직요회전법(varimax)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실시
- 신뢰성 분석의 경우 모든 측정변수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음(임종원 1996)

### (3) 요인분석 결과

- 가치 지향적 이론(value-oriented theory)와 문화적 물질주의 이론(cultural Material theory), 산업 통합이론(industrial convergence theory)를 결합한 형태의 세계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 자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
- 총 13개 세부 항목을 요인분석에 활용하여 결과를 확인
- 세계시민주의와 문화연구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며 요인화의 명명을 재점검
  - factor 1의 경우 ‘적극적 지구촌 주의’, factor 2의 경우 ‘소극적 안일부의’, factor 3의 경우 ‘보수적 공동체주의’로 명명함



<표 V-6> 사회적 관계형성과 세계시민주의 요인분석 결과

| No.              | 설문문항                                  | factor<br>1 | factor<br>2 | factor<br>3 |
|------------------|---------------------------------------|-------------|-------------|-------------|
| 21               | 어떤 결정을 할 경우 다른 많은 원천으로<br>부터 정보를 입수한다 | <u>.866</u> | .153        | -.202       |
| 20               | 나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듣는 것을 즐긴다                | <u>.854</u> | .373        | .156        |
| 19               | 나는 타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길 원한다                 | <u>.818</u> | .235        | -.237       |
| 28               |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친구들의 의<br>견을 많이 듣는다   | <u>.761</u> | .178        | .006        |
| 18               | 나는 경제나 정치에 관심이 많다                     | <u>.739</u> | -.179       | .367        |
| 29               | 나는 쾌활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 .138        | <u>.890</u> | -.037       |
| 30               |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 .056        | <u>.866</u> | .000        |
| 22               |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깊이있게 개입<br>하는 편이다       | .433        | <u>.742</u> | -.021       |
| 23               | 나는 내가 잘 아는 일만을 하고 싶다                  | -.015       | .125        | <u>.959</u> |
| 26               | 외국인들은 종종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 -.027       | -.140       | <u>.935</u> |
| Cronbach's alpha |                                       | .874        | .831        | .861        |
| Eigen-value      |                                       | 3.485       | 2.410       | 2.053       |
| 누적분산(%)          |                                       | 34.852      | 58.955      | 79.481      |

각주: factor 1 = '적극적 지구촌 주의'

factor 2 = '소극적 안일주의'

factor 3 = '보수적 공동체주의'

### 3. 토착민과 이주민의 비교분석 결과

-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육지-섬의 지리적, 지역적 갈등의 원천에 거주민과 이주민간의 사람,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른 의식 차이와 심리적 원인이 크다고 단정 짓고 있음
- 연구 결과, 집단 간 분석 결과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 분석 결과, 심리적 ·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V-7> 토착민과 이주민의 시민의식 비교

| 항목            | 전체<br>평균 | 출신별       |           | t    | p    |
|---------------|----------|-----------|-----------|------|------|
|               |          | 토착민       | 이주민       |      |      |
| 적극적<br>지구촌 주의 | 3.57     | 3.60(.74) | 3.53(.73) | .157 | .878 |
| 소극적<br>안일부의   | 3.39     | 3.50(.55) | 3.28(.95) | .495 | .631 |
| 보수적<br>공동체주의  | 2.50     | 2.67(.93) | 2.33(.93) | .620 | .549 |

- 요인분석의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연구항목에 대한 차이, 그리고 요인화에 의해 희석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합리적 의심에서 세분화된 분석 진행
- <표 V-8>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한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것만 활용한 것임
- 아래 표는 세계시민주의의 요인화 작업을 위해 활용한 연구항목임
  - 항목 간 토착민과 이주민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음

- 통계적 유의미 범위를 90% 신뢰구간에서 확인한 결과 차이가 없음
- 개선의 여지와 정책적 방향성의 충분한 내용 파악 및 준비성에 따라 개선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 단순히 문화에 따른 차이라는 단정보다는 갈등의 문제 원인에 대한 신중한 이유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세계시민주의 세부 연구항목과 토착민과 이주민 집단의 응답의 비교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검증 값이 존재하지 않기에 결과 값 비교에 의미가 없음
- 집단 간 차이, 혹은 문화권, 사람에 대한 차이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려 해서는 안 됨
- 델파이 응답내용과 비교해본다면, 육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제주 토착민간 응집문화는 사라진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정성적 연구결과와 일관성있는 분석 결과로 유추 가능함. 하지만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이 모집단 선정기준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본 연구의 응답자 수가 정량조사를 위한 조건에 미흡한 기준이 될 것임.

<표 V--8> 세계시민주의 세부항목과 집단 간 차이

| 설문9)<br>No. | 전체<br>평균 | 출신별        |            | t     | p     |
|-------------|----------|------------|------------|-------|-------|
|             |          | 토착민        | 이주민        |       |       |
| 18          | 3.41     | 3.50(.83)  | 3.33(1.21) | .277  | .787  |
| 19          | 3.91     | 3.83(.41)  | 4.00(.89)  | -.415 | .687  |
| 20          | 3.5      | 3.50(.84)  | 3.50(1.05) | .000  | 1.000 |
| 21          | 3.5      | 3.50(1.05) | 3.50(.84)  | .000  | 1.000 |
| 22          | 2.83     | 2.83(.75)  | 2.83(.98)  | .000  | 1.000 |
| 23          | 2.75     | 2.83(.75)  | 2.67(.81)  | .368  | .721  |
| 26          | 2.25     | 2.50(1.22) | 2.00(1.10) | .745  | .473  |
| 28          | 3.35     | 3.37(1.03) | 3.33(.52)  | .707  | .496  |
| 29          | 3.75     | 3.67(.82)  | 3.83(.98)  | -.319 | .756  |
| 30          | 3.58     | 4.00(.63)  | 3.16(.98)  | 1.746 | .111  |

9) 설문문항 18번: 나는 경제나 정치에 관심이 많다

19번: 나는 타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길 원한다

20번: 나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듣는 것을 즐긴다

21번: 어떤 결정을 할 경우 다른 많은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다

22번: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깊이있게 개입하는 편이다

23번: 나는 내가 잘 아는 일만을 하고 싶다

26번: 외국인들은 종종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28번: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29번: 나는 쾌활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30번: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 VI. 결 론

### 1. 정성적 연구의 요약

#### 1) 델파이 분석: 이주민이 제주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지역사회 문화적 융화를 위해 세대별, 연령별 집단과 직업군과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델파이분석을 통해 각 개념을 체계화할 때,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적응의 개념들이 상황별, 적응 수준별 차별화되는 양상을 개념화 함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요인을 델파이 분석을 통해 7가지 요인으로 추출함
  - ‘교육환경’, ‘의료시설’, ‘쇼핑·문화’, ‘지역정서’, ‘교통’, ‘상권’, ‘정책’
  - 각 요인을 이루는 하위요인들로 세분화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음
- 질적 연구방법인 델파이 분석을 통해 조사 응답자들이 언급하는 [‘뜨는’ 제주에서 왜 ‘뜨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수렴
  - 정량적 연구방법의 수치적 통계자료의 비교를 위해 델파이 조사 자료를 설문 항목으로 활용함

#### (1) 교육환경 : 자녀 혹은 본인의 교육 환경

- 자녀의 교육환경 및 제주 거주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음
- 제주로 이주하게 된 이유와 적응의 불만족 원인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응답이 높음

① 교육열

- 제주의 교육열에 대한 토착민과 이주민의 응답 결과가 일치함
-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와 시외의 지역격차가 나타남

② 학교 내 환경

- 학교 내 환경에 대한 토착민과 이주민의 응답차이가 발생

③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 환경

- 고등 학력의 이주민 여성들은 평생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을 보임

(2) 의료시설 : 의료 및 복지시설과 혜택

- 의료 환경이나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혜택에 대한 의견

① 의료시설 만족도

- 의료시설과 만족도는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의견이 극명히 갈림
  - 의료의 시설에 대한 불만보다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한 서비스 요인에 매우 불만족하게 응답함
  -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주 의료기관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쇼핑 · 문화 : 쇼핑시설 및 여가문화 환경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이 생각하는 ‘여가’라는 개념의 인지적 차이가 있음을 상기하며 해당 쇼핑 · 문화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들의 느끼는 여가 공간의 부족
- 쇼핑의 불편함에 대한 상당한 고충

#### ① 여가 공간 부족

- 여가 공간의 부족과 여가 개념에 대한 토착민과 이주민의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함

#### ② 쇼핑의 불편

- 제주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타 지역과의 격차를 많이 느끼는 부분은 문화시설과 쇼핑 공간이었음
- 인터넷 배송요금의 민감도가 토착민보다 이주민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주민의 경우 쇼핑을 위해 타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음

### (4) 지역정서 : 지역민과의 정서 및 관점

- 제주의 자연에 대한 동경과 낭만에 사로잡혔던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갈등과 어려움의 요인은 지역민과의 관계였음

#### ① 낮선 언어와 억양

- 제주 사투리의 이질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왜곡 현상이 발생함
- 제주 사투리의 반말 형태의 짧은 문장을 어른도 높임말 없이 사용하는 것에 이주민들은 유교문화권과 상충된다고 여감

#### ② 제주 토착민의 강한 연대

- 토착민과 이주민 모두 좁고 강한 연결의 관계가 지속되는 곳이라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고교 중심의 독특한 연대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이주민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한다기보다 제주를 지켜온 ‘보호본능’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토착민 의견이 드러남
- 강한 연대를 보이는 제주 권당 문화는 이전 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에서는 사라져가는 추세임

### ③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

- 제주에서의 생활문화와 현실적인 문제 등은 살아가기 전엔 알 수 없다는 응답이 높음
- 관광지 제주의 모습 이외의 현지인의 문화 이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함

### ④ 의식 차이

- 이주민 여성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충돌이 세대격차로 나타남
- 발전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여권(女權) 갈등을 보임
- 유교 문화권에서 어른에 대한 예절과 상충되는 생활양식에 모순을 느끼고 있는 이주민들

### ⑤ 무속 신앙

- 생활 문화권에 깊숙이 자리 잡은 토착신앙에 대한 이해와 제주민의 두려움

### ⑥ 관계적 집단문화

- 결혼 예식은 잔치로 진행되는 제주 문화
  - 이주민들은 제주의 결혼식 잔치 문화와 수놓음, 관계중심의 공동체에 대하여 이해가 매우 낮았으나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5) 교통 :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

- 여유롭고 평화로운 제주의 이미지와 달리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

① 난개발로 교통 혼잡

- 관광객으로 포화된 공항과 단위면적당 자동차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토착민 및 이주민 모두 불편을 호소함

② 주차장 부족

- 무분별한 개발과 허가로 차량 증가와 주차에 대한 수요예측의 부재

③ 지역 격차

- 대중교통 시설 이용에 관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 자전거 길의 목적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변질되기도 하며,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보임

(6) 상권 : 창업을 위한 자금, 노동력, 판매, 유통 등의 환경

- 제주 이주자들은 1차 산업인 농업형 귀농 이주보다는 3차 서비스 산업의 사업형 이주가 많은 것이 특징임
  - 대도시의 사업 환경과의 차이로 제주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① 노동력 확보

- 부동산 개발 붐과 함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제주 토착민의 노동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함

## ② 절차주의 vs 신뢰주의

- 행정 처리와 관련된 일정에 모순을 느끼는 이주민들
-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주만을 위한 배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룰(rule)로 인식됨

## ③ 지역문화와 발전의 속도

- 개인 사업 등 서비스 산업 관련분야에서 이주민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음
- 제주의 경쟁력의 큰 원천인 자연의 보존보다는 개발 논리를 앞세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④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는 발전

- 제주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제주
  - 전통을 유지하며 발전해나가는 제주를 기대하는 토착민들
- 무분별한 도시화로 제주다운 매력을 잃어가는 제주

## ⑤ 유통 및 판매처 관리

- 제주만의 특색 있는 상품의 부재
  - 6차 산업을 통한 상품개발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유통처 확보의 어려움
- 소비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 (7) 정책 : 이주정착, 생활, 적응 관련 정책

- 관광지로써의 제주에 대한 정보량과 달리, 거주지이자 생활문화권으

로써의 제주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① 주거 문제

- 제주에서의 정착을 위한 주거 문제 : 년세, 신구간
- 제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달살이 프로그램
  - 프랑스 파리(Paris)보다 높은 제주의 거주비용의 실태 확인가능
- 주거 난방시설의 노후함

② 낮은 임금과 높은 생활물가

- 전국 최하위 급여, 높은 생활 물가에 버티기 힘든 이주민의 삶
- 고용구조
  - 도민우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여기는 이주민들의 불안함
  - 권위적이고 경직된 기업문화에 적응이 힘든 이주민

③ 부동산 개발

- 제주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토착민과 이주민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

④ 언론의 역할

- 현실과 거리가 먼 언론의 보도에 불편해하는 토착민과 이주민들
- 어촌계의 바다 독점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내는 토착민과 이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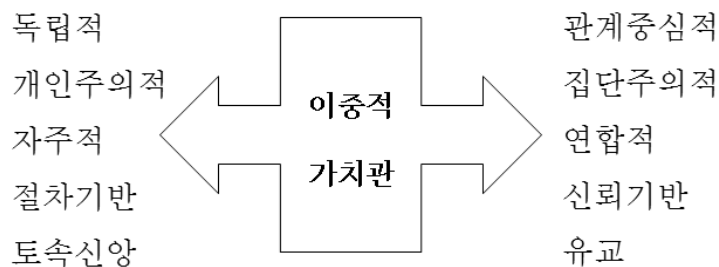
⑤ 전시 행정의 개발이 아닌 지역 경쟁력을 갖춘 개발

-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발이 필요함

## 2)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생활 가치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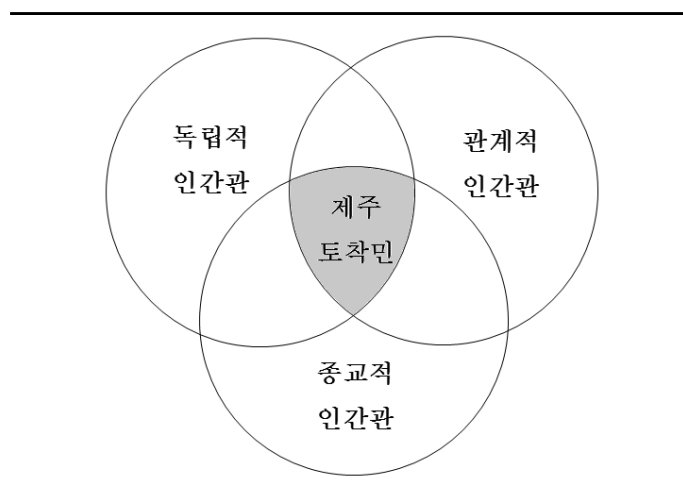
### (1) 제주에 적응하고 살아온 토착민 생활 가치

- 델파이 연구결과를 통해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생활 방식에 따른 가치관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구분 가능함
  - 제주 토착민은 관계 지향적 가치, 이주민은 목적 지향적 가치를 뒀
- 생업의 기반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라는 공간 안에서의 토착민과 이주민의 삶의 모습과 문화적 관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
- 제주 토착민의 경우 집단중심의 관계적 인간관과 함께 개인중심의 독립적 인간관을 함께 보이고 있음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역설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닌 제주 토착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주민
  - 척박한 제주의 환경을 개척하기 사람 간 관계중심적이고,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며,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집단 속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중심적 성향이 형성된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임



[그림 VI-1] 제주 생활문화의 이중적 가치관

- 심층 면접 중, 이주민이 바라본 토착민의 모습이 ‘이중적이다’, ‘모순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제주는 유교권 문화권인데 결혼 후 부모와 식사를 같이 안 한다’는 점, ‘이주민에게는 절차를 따지고, 토착민에게는 인맥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례를 들며 이해 불가함을 언급함
- 제주와 토착민 문화에 대한 이주민의 이해도가 낮아 문화적인 거리에서 오는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음
  - 제주 토착민 문화에 대한 교육 자료나 정보가 전무한 실정임
  - 한국인이지만 극명히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질감에 이주민들은 배척받고 있다 느끼며, 외지인에 대한 배타주의와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음
- 토착 신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신이 생활 곳곳에 자리잡은 제주 문화가 이주민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함과 함께 현대적인 관점에서 발전이 뒤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림 VI-2] 제주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형성된 다양한 인간관

-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발전의 속도가 다를 뿐, 육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하나일 뿐 독특한 것도, 촌스러운 것도 아님
  - 제주 문화에 대한 교육 혹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개념서 등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들이 부재한 상태임
- ‘밤에는 도깨비가 돌아다닌다’, ‘태풍이 불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왔던 토착민들은 밤에 놀거리를 찾고, 태풍이 불면 바다를 구경하러 나가는 이주민이 이해 불가능함
-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장치를 마련하여 정서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거리감을 좁혀 문화적 융화를 이뤄가야 할 것임

## 2. 정량적 연구의 요약

### 1) 사회과학 조사분석: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비교문화적 차이

- 제주의 생활 및 정착을 위한 심리·사회, 문화적 융화의 측면에서 토착민과 이주민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뤄지는 데에는 사회적 관계형성과 세계시민주의 이론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음
-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정착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이해관계자의 상황 및 적응의 정도와 사회적 구성원의 입장에 따른 기대 가치를 구분하여 연구되어지지 않았음
- 지역 및 사회 간 갈등 및 문화적 요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의 개념을 적용하여 토착민과 이주민의 응답확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심리적 계약이나 내부 마케팅에 따른 가치 생산자적 측면, 기존의 SEVQUAL로서 이론적 맥락으로 평가되는 서비스 평가방식과 정(情)마케팅에 기대하는 가치 소비자의 측면, 그리고 상생과 공생적 마케팅 차원의 경영활동의 가치 전달자적 접근 방식에 따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객관적 지표로 제시되는 척도를 바탕으로 지수화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인 수준의 생활의 만족과 삶의 질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대상으로 측정하여 세계적인 도시차원의 사회 자원을 확립하는데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제안하고자 함
-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 (1)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사회학적 갈등요소 결과비교

- ‘교육환경’, ‘쇼핑·문화’, ‘지역정서’, ‘상권’, ‘정책’의 요인에서 토착민과 이주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환경’, ‘쇼핑·문화’, ‘지역정서’, ‘상권’, ‘정책’의 요인에서 토착민과 이주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2) 사회적 거리가 사회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주민간 거리감이 사회적인 거리로 확대되고 지역 간 융화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토착민과의 거리와 이주민간의 거리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제주 토착민간 사회적 교류와 거리감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토착민과 토착민 간 거리가 가까웠으며, 이주민과 토착민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 (3) 제주 삶의 만족도와 추천의도

- 토착민과 이주민이 느끼는 제주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분석
  - 토착민과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착민의 경우 제주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주민의 경우 토착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토착민과 이주민이 응답하는 제주로의 이주에 대한 추천도 비교분석
  - 토착민과 이주민의 제주로의 이주 추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착민의 경우 이주민보다 만족도가 높은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제주로의 이주 추천도가 이주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 (4) 관계형성과 사회적 자본

- 지역 및 사회 간 갈등 및 문화적 요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시민주의(Cosmopolitanism)’의 개념을 적용하여 토착민과 이주민의 응답확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 경쟁력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매개가 됨
  - 다문화 사회로 빠른 변화가 진행 중인 제주에서 다음 발전 동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부분임
- 요인분석 결과 factor 1은 ‘적극적 지구촌 주의’, factor 2는 ‘소극적 안일부의’, factor 3은 ‘보수적 공동체주의’로 명명함
-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육지-섬의 지리적, 지역적 갈등의 원천에 거주민과 이주민간의 심리적 갈등이 큰 원인이라고 단정한 연구들에 변화하고 있는 제주에 대한 현재 관점을 다시 정립하고자 함
  - 토착민과 이주민의 비교분석 연구 결과, 집단 간 분석 결과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 분석 결과, 심리적 ·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3.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 본 연구는 낭만과 환상의 섬으로 알려진 ‘뜨는’ 제주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던 이주민들이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제주를 떠나는 ‘뜨는’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개념화함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으로부터 수집한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삶이 이뤄지는 제주 내에서의 심리, 사회, 문화 등을 통합된 차원에서 분석함
- 연구 결과 첫째, 정성적 연구방법의 델파이 분석을 통해 제주 정착의 갈등요인으로 ‘교육환경’, ‘의료시설’, ‘쇼핑·문화’, ‘지역정서’, ‘교통’, ‘상권’, ‘정책’과 같은 7개 요인을 도출하고, 세부 하위요인들을 규명함
- 둘째, 제주 정착의 갈등 요인에 대한 응답결과 제주 토착민은 관계지향적 가치로, 이주민은 목적지향적 가치의 방향성을 나타냄
  - 제주 토착민의 경우 집단중심의 관계적 인간관과 함께 개인중심의 독립적 인간관을 동시에 나타냄
  -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주민의 이해도가 낮아 문화적인 거리에서 오는 소외감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셋째, 정성적 연구결과를 구조화시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제주 토착민이 이주민보다 모든 항목에서 제주정착의 갈등요인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이주민의 경우 쇼핑·문화, 지역정서, 정책의 영역에서 특히 낮은 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남.
- 넷째, 토착민과 이주민의 심리와 문화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으

로써의 경쟁력을 확인함

- ‘적극적 지구촌주의’, ‘소극적 안일주의’, ‘보수적 공동체주의’의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형성과 시민주의 성격을 확인됨
- 이러한 요인의 토착민과 이주민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음
-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의 기존 이주민 문화 수용과 갈등 관련 연구들의 한계 극복
  - 기존 연구들은 갈등의 원인을 ‘문화의 차이’라는 모호하고 추상화된 개념으로 한계 짓고, 정확한 해결방법에 대한 모색을 회피하고 있음
  -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주민 만족과 관련 연구들은 이주의 목적이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연구된 한계를 보임
  - 토착민과 이주민간의 문화·심리학적인 갈등이나 오해의 내적인 요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본 연구는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기초조사임
- 제주의 토착민과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정책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문화적 융화의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정책 제언

### (1) 낯선 언어와 억양의 극복

- 제주 토착민의 낯선 언어와 억양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왜곡 극복
  - 언어의 문자적인 부분에서 낯설게 느끼기도 하지만, 음성적인 부분

- 에서는 큰 이질감을 느끼며 위협적이라 언급하는 이주민들이 많았음
- 자연환경에 맞게 진화해온 언어습관이고, 제주의 문화임을 알려야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함



자료(좌): 직접 촬영, 보도블럭에 설치된 안내판, ‘갯갯질이우다 허천더레 브레당 푸더지난 졸바로 걸영 강 뵙 읍서’

자료(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 [그림 VI-3] 제주 사투리 안내판의 음성화

- 음성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 제주 언어의 이질감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안내판의 음성화를 시도가 필요함
  - 문자 중심의 사투리 교육이나 안내보다는, 음성을 통한 제주언어가

익숙해지도록,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2) 제주 토착민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상권 조성

-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테리어와 조명, 혹은 지역민이 모두 공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던 땅들을 매입하는 육지인의 질서 없는 난개발이 제주 미관을 해침
-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과의 융화되지 못하는 마찰의 시작점으로 작용됨
- 외국의 주요 관광지의 경우
  - 건축허가 및 인테리어는 철저히 관할 행정구역의 허가 아래 규정된 내용으로 개발 진행되어짐
- 제주의 경우는 이러한 관리 관할 규정이 전무함
  - 지역 정서와 역사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관리 규정이 필요함
  - 이주민의 발전 논리와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독특한 상권조성에 못마땅해 하는 토착민과의 갈등이 빈번한 상황임. 마을주민 간 규약 혹은 철저한 행정관리 가이드라인의 설계가 필요함
- 지역문화를 존중하며 전통을 함께하는 해외 상점들 벤치마킹
  -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경우, 지역민 간 상생의 발전 미학을 보임
  - 벽에는 하얀색 페인트, 지붕에는 파란색 페인트 칠을 해야 하며, 더러워진 벽을 방치하거나 다른 색을 칠하면 벌금이 부과됨. 관리를 위한 내규가 마련되어 있음([그림 VI-4] 참고)



자료: 트래블바이크뉴스 2016년 7월 4일자 기사

[그림 VI-4] 지역성을 살린 산토리니 이아마을

-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보전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의식 향상이 필요함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의 ‘상점 거리’의 오래된 가게와 오래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임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기차역’의 경우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현대화된 이미지로 거듭남. 다양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에 맞는 발전 방향의 모색 필요함



자료: (상)문화일보 2010년 9월30일자 기사, (하)직접 촬영

[그림 VI-5] 아름다운 간판이 문화상품이 되고 있는 잘츠부르크



자료: 직접 촬영

[그림 VI-6] 전통과 현대의 조화: 스트라스부르 기차역

### (3) 어촌계를 둘러싼 문제

#### ○ 어촌계와 해녀 보호

- 무조건적인 보호나 감시 규정보다는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License)의 판매로 어촌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와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 이용권의 판매 수익으로 다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사용 및 투자가 가능함
- 알래스카의 경우 바다 낚시권(Fishing license)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광객은 하루 3마리의 물고기 낚시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됨
- 해외의 바다 낚시권한 판매와 이용 관리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에 적용할 수 있길 권장함



State of Alaska myAlaska My Government Resident Business in Alaska Visiting Alaska State Employees

Alask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Home Fishing Hunting Subsistence Viewing Education Species Lands & Waters Regulations

About Us Join Us News & Events Management & Research Licenses & Permits e-Library Maps & GIS Contact Us

**Sport Fishing License Information**

Sport Fishing License Home

Licenses Purchasing

Licenses Prices

- Buy Your License Online
- Mail-in Purchasing
- Online Purchasing FAQs

General Information

- Residency Definitions
- Low Income Licenses
- Senior Citizens
- Disabled & Elderly
- Military Licenses
- Licenses/Permits FAQs
- Licensing Contacts

Product Prices

Licenses, Stamps, and Tags

| RESIDENT FISHING & HUNTING LICENSES                                     |  | PRICES  |
|---|--|---------|
| Resident Annual Sport Fishing License                                   |  | \$24.00 |
| Resident Annual Sport Fishing and Hunting License                       |  | \$48.00 |
| Resident Annual Sport Fishing, Hunting, and Trapping License            |  | \$62.00 |
| Resident Annual Hunting   |  | \$25.00 |
| Resident Annual Trapping  |  | \$15.00 |
| Resident Annual Low Income Sport Fishing, Hunting, and Trapping License |  | \$5.00  |

자료: Alask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홈페이지

#### [그림 VI-7] 알래스카 낚시 허가증 구매 안내

- 제주 바다의 해수욕장과 어촌계의 바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 현재의 제주 자치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관광책자 및 그 외의 관광안내서에는 어촌계의 바다 양식장과 관련된 어업민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일부 바다의 경우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제주바다 이용 백서'와 같은 형태의 정보전달이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사전에 정확한 정보의 제공만으로도 갈등을 줄일 수 있음

#### (4) 제주 가이드북에 사회·문화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안내 필요

- 공항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주 안내 책자를 비롯하여 대부

분의 제주 가이드북에는 여행지에 대한 소개만 실려 있음

- 제주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통한 독특한 생활양식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해당 정보들을 제주안내 가이드북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사람간의 충돌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 못한 정보 부재에서 야기되는 문제임
- 제주 토착민에게는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와 제주민에 대한 안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이주민과 관광객이 제주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동시에 관광지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고충을 수용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함



자료: 직접촬영

[그림 VI-8]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지도

## (5) 제주 농가의 6차 산업 유통처 확보 필요

- 농업에서 진화한 형태로 6차 산업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들이 공산품에 비해 훨씬 상품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어려운 실정임. 6차 산업의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판매와 유통방식의

접근은 농가마다 개인적 능력차가 큼.

- 제품의 문제이기보다는 유통처의 확보가 절실함을 확인. 대부분 농가의 작은 가게나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주민들이 활성화한 플리 마켓과의 연동, 혹은 제주 특산품으로의 유통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6차 산업 상품의 판매경로(out-bound)도 중요하지만, 제조·가공업의 경우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로(in-bound)의 지원도 필요함

#### (6) 이주민이 겪는 문제점 중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어려움

- 수명주기 이론(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과 같은 진행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생애주기(life-cycle)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주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착의 어려움을 단계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제주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학생 및 2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 주거지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의 독특한 계약 문화인 년세(yearly rent)에 대한 부담을 은행의 대출이나, 좀 더 현실적인 주거 계약형태가 필요함

#### (7) 지역 민심과 함께하는 관공서

- 자전거 길을 농산물 건조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 돕기
  - 각종 규제들을 만들어 토착민의 생활 반경과 활동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제주 내에서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에 불만이 커질 것임
  - 지역민의 고충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가며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관민(官民)의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해외 관광객의 시각에서 무질서하고 낮은 의식의 국민성(national character)을 보인다는 오해의 소지가 큰 부분이므로, 방치하기만 할 수 없음
- 농산물 건조와 같은 생계유지 활동에 필요한 사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
- 강원도의 경우, 고추 분실이나 도난 방지 등 농촌 주민의 민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민심을 회복하고 있음. 또한 언론에 보도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효과가 높아짐



자료: 뉴스 1 2016년 8월 24일자 기사

[그림 VI-9] 지역 문제점에 함께 고민하는 관공서

## 참고문헌

### 단행본

- 이종성(2001), 「텔파이 방법」, 교육과학사.  
임종원(1996), 「마케팅 조사 이렇게」, 법문사.  
주희춘(2008),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 출판사.

### 정기간행 학술지

- 김필호(2015), 강남의 역류성 젠트리피케이션: 신사동 가로수길과 방배동 사이길의 사례연구,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14호, p.87-123.  
소진광(1999),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논리, 「지역사회개발 연구」, 24권(1호), p.29-47.  
오윤정, 황경수, 고관우, 조선희(2014),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권(1호), pp.296-315.

### 보고서

- 부산복지개발원(2012),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적응 척도 개발.  
제주발전연구원(2014), 제주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연구.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주지역 경제성장 역량 강화방안 -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  
제주특별자치도(2015),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 매체 기사

- 뉴스 1, 경찰서 앞마당에서 고추 말리기, 2016년 8월 24일.  
문화일보, 잘츠부르크 맥도날드 ‘빨간 간판’도 무릎 꿇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신문, 해산물 ‘점령’ 정류장 ‘불쑥’... 제주 라이더 “환상 아닌 환장”, 2016년 7월 20일.  
아이엠피터, ‘제주 이주민’ 그들은 왜 제주로 왔는가? 2015년 5월 16일.  
제주의 소리, “제주에서 ‘바룻잡이’체험 놓치지 마세요”, 2014년 7월 31일.

제주의 소리, 제주도 인구 64만명 돌파...2년 만에 4만명 늘어, 2016년 01월 12일자 기사.

채널A, [현장고발]투기에 '제주의 속살' 신음, 2016년 8월 27일.

트래블바이크뉴스, 산토리니, 상생의 미학이 빛나는 곳, 2016년 7월 4일.

한라일보 TV, 제주도 해녀-스쿠버다이버 마찰 왜?, 2016년 5월 25일.

KBS, 난개발이 빛은 제주도의 슬픈 자화상, 2016년 9월 15일

#### 외국 문헌

Barerra, M. & Ainlay, S. L.(1983), The Structure of Social Support: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p.133-143.

Benedict, R.(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Houghton and Mifflin.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공 번역. 2006.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Bullen, P. & Onyx, J.(199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Centre for Australian Community Organisations and Management(CACOM),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Burt, R.(1992), Structural Ho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p.300-314.

Coleman, J.(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alkey, N. C. & Helmer, O.(1963),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to the use of experts. *Management Science*, 9(3), p.458-461.

Dean, A. & Lin, N.(1977), The Stress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2), p.403-413.

Gordon, T. J.(1992), The Methods of Future Resear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Grootaert, C.(1998), What is Social Capital?, The World Bank Resource

Paper.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National Differences in Thinking and Organizing*, Beverly Hills, CA: Sage Press.
- Hsu, Chia-Chien & Brian A. Sandord,(2007), The Delphi Technique: Making Sense of Consensu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2(10), p.1-8 .
- Loury, G.(1992),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Getting to the Core of the Problem, *Harvard Journal for African American Public Policy*, 1, p.100.
- Narayan, D.(1999), Bond and Bridge: Social Capital and Poverty: Poverty Group. PREM. World Bank.
- Segal, M., Segal, U. A., & Niemczycki, A. P.(1993), The Behavioral Manifestations of the Value System,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7, p.65-83.
- Vinson, D. E., Scott, J. E., & Lamont, L. M.(1977), The Role of Personal Balues in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41(2), p.44-50.
- Woudenberg F.(1991), An Evaluation of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40), p.131-150.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잡코리아 (<http://www.jobkorea.co.kr/>)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http://www.jeju.go.kr))

한국잡이어 (<http://www.koreagapyear.com/>)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rcps.egov.go.kr:8081/](http://rcps.egov.go.kr:8081/))

Alask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http://www.adfg.alaska.gov/>)

Youtube: Human LCD - Jeju football tournament (<https://youtu.be/n-3JJryNEm4>)

Youtube: SOUTH KOREA SUPPORT ([https://youtu.be/6R1n7pf\\_riE](https://youtu.be/6R1n7pf_riE))

## **Abstract**

### **Are local residents in Jeju happy with migrants from outside?**

- A study for cultural harmony between natives and  
new comers

Joo-Ho Kim, Joo-Young Son, Eun-Jeong Yi

Keyword : Migrants, Local residents, Cultural harmony, Delphi technique,  
Mixed methods

This article is trying to conceptualize the reason why people from outside Jeju island often fail to settle permanently and leave in short period of time. We empirically analyse the data from natives and new comers for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o see thoroughly what is going on. In other word, We conducted a delphi technique to gather the data need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essence are as follow. First, we found seven conflict factors such as educational and shopping environment, commerce and medical facility, public transportation and policy,

Second, one of conflict factors is coming from the fact that Jeju natives are tend to value high relationship with people than new comers who are more likely goal-oriented. They feel psychological isolation due to lack of cultural understanding each other.

Third, in general, Jeju natives are more satisfied with seven factors than new comers when new comers are not happy with shopping environment, local culture and policy.

Finally, there are no differences among natives and new comers with respect to terms such as progressive globalism, passive complacency, and conservative communalism. The finding of no difference in this subject support a conclusion that there are still hope for people in Jeju. And they can create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understanding each other by reducing cultural gap gradually.



## 부 록

'뜨는' 제주와 제주를 '뜨는' 주민들. 뜨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한가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를 위한 기초조사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제주학연구센터(제주발전연구)'의 2016년도 연구지원 공모과제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 거주민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만족도를 이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면접 및 설문지의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 여러분이 특정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답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연구에 대한 참여를 중단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본 면접 및 설문조사의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응답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되며, 연구목적 및 통계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 본 연구 및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십시오.

- 공동연구 담당자: 이 은 정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523688@hanmail.net (02-300-0750)

☑ 다음 항목에 대한 **제주에서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문 항                                   | 매우<br>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br>만족 |
|----|---------------------------------------|-----------|-----|-----|-----|----------|
| 1. | 교육환경 : 자녀 혹은 본인의<br>교육환경              | (1)       | (2) | (3) | (4) | (5)      |
| 2. | 의료시설 : 의료 및 복지시설<br>과 혜택              | (1)       | (2) | (3) | (4) | (5)      |
| 3. | 쇼핑.문화 : 쇼핑시설 및 여<br>가문화 환경            | (1)       | (2) | (3) | (4) | (5)      |
| 4. | 지역정서 : 지역민과의 정서<br>및 관점               | (1)       | (2) | (3) | (4) | (5)      |
| 5. | 교통 : 대중교통 및 도로 환<br>경                 | (1)       | (2) | (3) | (4) | (5)      |
| 6. | 상권 : 창업을 위한 자금, 노<br>동력, 판매, 유통 등의 환경 | (1)       | (2) | (3) | (4) | (5)      |
| 7. | 정책 : 이주정착, 생활, 적응<br>관련 정책            | (1)       | (2) | (3) | (4) | (5)      |

8. 귀하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한다면 어떠십니까?

|        |       |       |       |       |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 ----- | ( 2 ) | ----- | ( 3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9. 나는 지역사회의 제주 토착민과 가깝게 지낸다

|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가깝게 지낸다 | 매우 가깝게 지낸다 |
| ( 1 )  | ----- | ( 2 ) | -----   | ( 3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10. 나는 지역사회의 제주 이주민과 가깝게 지낸다

|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가깝게 지낸다 | 매우 가깝게 지낸다 |
| ( 1 )  | ----- | ( 2 ) | -----   | ( 3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11.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       |       |       |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 ----- | ( 2 ) | ----- | ( 3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12. 대도시에서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       |       |       |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 ----- | ( 2 ) | ----- | ( 3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13. 제주도에서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       |       |       |       |       |
|-------|-------|-------|-------|-------|
| 적극 반대 | 반대    | 보통    | 추천    | 매우 추천 |
| ( 1 ) | ----- | ( 2 ) | ----- | ( 3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전혀<br>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4. | 어떤 일이나 사전 준비를 신중하게 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15. | 나는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16. | 현재의 나의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17. | 나는 현재의 나의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 (1)       | (2) | (3) | (4) | (5)       |
| 18. | 나는 경제나 정치에 관심이 많다         | (1)       | (2) | (3) | (4) | (5)       |
| 19. | 나는 타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길 원한다     | (1)       | (2) | (3) | (4) | (5)       |
| 20. | 나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듣는 것을 즐긴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21. | 어떤 결정을 할 경우 다른 많은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다 | (1) | (2) | (3) | (4) | (5) |
| 22. |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깊이있게 개입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23. | 나는 내가 잘 아는 일만을 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 24. | 나는 내 친구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25. | 보통 시키는 일만 잘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 (1) | (2) | (3) | (4) | (5) |
| 26. | 외국인들은 종종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 (1) | (2) | (3) | (4) | (5) |
| 27. | 나는 누가 일하는데 한가지 방법만 주장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 28. |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 (1) | (2) | (3) | (4) | (5) |
| 29. | 나는 쾌활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 (1) | (2) | (3) | (4) | (5) |
| 30. |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31. |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32. |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33. | 새 상품이 나오면 남보다 먼저 사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34. | 값싼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상점에서 가격을 비교한다.  | (1) | (2) | (3) | (4) | (5) |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귀하의 현재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10대 (2)20대 (3)30대 (4)40대 (5)50대 (6)60대 이상

3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남 (2)여

37.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주부 (2)회사원 (3)자영업 (4)공무원/공기업 (5)교사  
(6)전문/자유직 (7)일용직 (8)학생 (9)무직/퇴직 (10)기타

38.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초등 (2)중등 (3)고등 (4)전문대학 (5)대학 (6)대학원

## 연구진

---

|      |     |          |
|------|-----|----------|
| 연구책임 | 김주호 | 명지대학교 교수 |
| 공동연구 | 손주영 | 광운대학교 교수 |
| 공동연구 | 이은정 | 명지대학교 강사 |

---

### 제주학연구 28

‘뜨는’ 제주와 제주를 ‘뜨는’ 주민들.

뜨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한가

- 제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융화를 위한 기초조사

---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6년 10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219 제주도 청사로 1길 18-4 1층 (도남동)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http://www.jst.re.kr)

인쇄처 || 하나CNC출판

---

ISBN : 978-89-6010-481-5 9333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